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14일(음력 1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619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부처님 저와 함께 춤춰요"

불레협 율동경연대회 · 풍경소리 콘서트 · 소년소녀합창단 순회공연

찬불가 · 율동 '새싹포교 키워드'로

"노래하고 춤추면 부처님과 친해져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신나는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포교현장에 노래와 율동으로 흥이 더해지면 그만큼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 이같이 신나는 일을 꾸미는 곳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 벗 풍경소리,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등 교계 어린이 단체들. 이들 단체는 새봄을 맞아 찬불가와 율동을 키워드로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 이하 불레협)는 3월 7일 회의에서 어린이 율동경연대회와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열기로 했다. 어린이율동경연대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열 계획이며, 총 참가팀은 단체 30곳으로 한정할 예정. 참가팀은 찬불가에 맞춰 창작율동을 선보여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고 밝은 찬불가를 창작 · 보급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불교청년회가 18차례 열어온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도 이관받는다. 불레협은 봉축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연꽃노래잔치의 본선을 5월 13일 치를 계획이다. 예선은 4월 29일이며, 총 참가팀은 300곳.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이하 풍경소리)가 준비하고 있는 찬불가 콘서트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상당한 '추임새'를 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풍경소리는 5월 3, 4, 5일 매일 한회씩 3일간 연이어 찬불가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풍경소리의 찬불가 콘서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열릴 계획이어서 어린이 청소년용 찬불가의 제작과 보급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계절별 콘서트를 통해 신선하고 재미있는 창작 찬불가를 널리 알리는 계기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단장 황학현)은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를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 사찰을 순회하며 합창 및 무용공연을 펼친다. 이번 순회 공연은 사찰 어린이법회에 어린이 합창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황학현 단장은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을 순회하며 매월 창작 합창곡 1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건축 · 문화용품에서 사찰홍보까지…"

한국불교박람회 · 22~2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2007 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110여개 업체에서 참가해 불교건축, 불교장례문화, 불교문화상품 및 포교용품 등을 300여개 부스에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전시할 예정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특히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 관음종 등이 종단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계사 관문사 도선사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들도 참여한다. 또한 다나아 이앤씨의 사이버체험관이 운영되며 산림조합중앙회목재유통센터에서는 한옥식 건물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15면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노무현 대통령 연꽃마을 시설서 '업무보고회'

노무현 대통령이 3월 6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을 방문해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 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능인 스님의 안내로 복지 시설을 둘러본 후 업무 보고회에 참석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과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업무 보고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 검진과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등의 노인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 보고회'로 형식을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꽃마을

봉축표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표어로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가 선정됐다.

봉축위원회는 3월 5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45점(148명 응모)에 대한 심사 결과 최윤규(41 · 적광)씨가 응모한 문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표어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곧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가 사용된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 한석불교문화재단에서 참선프로그램과 요가지도를 하고 있는 최윤규씨는 "상금30만원을 해외 불교홍포를 위한 사업에 기부해 달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척박한 곳에서 자란 나무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김덕명의 사찰학춤… '명인'의 '명무'

두 마리의 학(鶴)이 노닐고 있을 뿐인데 무대가 좁다.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가득채운 반주음악 속에서 두 마리 학이 너울너울 몸짓언어를 풀어내는 동안 관객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을까?

3월 8일 예악당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무대는 김덕명 옹의 양산사찰학춤으로 시작됐다. 진행을 맡은 최종민 교수(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는 김옹을 소개하며 "여든넷의 연세이고 최근에 병환을 겪은 터라 한발로 표현하는 동작이 많은 학춤을 어떻게 소화하실지 모르겠다"고 은근한 걱정을 했다. 그러나 최교수의 걱정은 기우였다. 김옹의 춤은 그 넓은 무대가 좁게 느껴지고 흐르는 반주음악이 들리지 않게 했다.

구경꾼들 속에서 기자는 '춤꾼의 팔순 연세보다 걱정되는 것은 갈수록 소외 받는 전통 가치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옹의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고 앞마당에서 춘 것이 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면면한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동작 그 자체가 갖는 고고한 아름다움은 학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통도사로 출가해 스님들께 사찰학춤과 승무 등을 익혀 평생 지켜온 김옹이 아니었으면 양상사찰학춤은 맥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전수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찰학춤을 비롯한 많은 전통무용들이 '무대용'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명인'이 '명무'를 드러내는 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임을 절감케 하는 무대였다.

임연태 기자

무료입장
www.bexpo.org
우리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DHISM EXPO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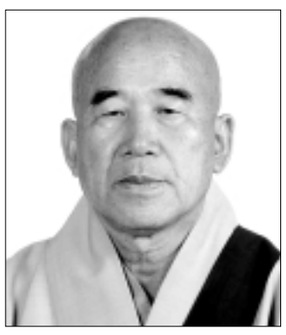
3월 22일(목) ~ 25일(일),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 706-3493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전시내용 : 사찰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 전통식품, 다기 · 다구, 장례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 혜안스님 서각체험, 도예체험, 연등만들기체험
●문화행사 : 범패시연, 선무도시연, 문화공연 등
한국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한국불교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문화, 산업 전시회! 한국불교의 모든 문화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2007한국불교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황금돼지 10돈 등)을 드립니다.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내리시면 출구가 하나입니다.
- 전시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축총림 방장후보 원명 스님 추대

통도사 산중총회서…중앙종회 동의 거쳐 취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에 원명 스님(통도사 비로암 감원 · 사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원명 스님은 3월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396명 중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추대됐다. 통도사는 2003년 월하 스님 원적 후 차기 방장을 추대하려했으나 후보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이며 내부진통을 겪어왔다.

1952년 사미계, 69년 비구계를 수지한 원명 스님은 통도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경봉장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원명 스님은 3월 26일 개원하는 제173차 임시중앙종회를 거쳐 4월경 취임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정책 · 자문기구 설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선센터 건립 등 사업계획 밝혀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안정성 및 장기적 전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사업단이 밝힌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자문위원회'는 운영사찰, 관광관련 학자, 관광분야 전문가 등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분기별 1회 열리는 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자문과 협조 방안을 모색한다. '템플스테이 정책협의회'는 운영사찰, 사업단, 문화관광부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템플스테이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을 한다.

문화컨텐츠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및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문화 컨텐츠 정책위원회'도 마련한다. 정책위원회는 사업단, 총무원 문화부, 지적재산권 및 문화산업 관련자들로 구성되며 연 2회 연찬회를 연다.

사업단은 또 각 사찰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개의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교부예정인 국고 지원금 150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도 나왔다.

150억원 중 시설지원비 130억원은 국제선센터 건립에 60억원, 템플스테이 센터 마련에 40억원, 전용시설 신축에 20억원, 전용시설 개보수에 5억원, 문화상품 전시 및 판매시설에 5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경상비 20억원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접 사업비 및 경상비 18억원과 당해 사찰 경상비 지원 2억원으로 집행될 예정.

한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주지 및 관련 스님들의 모임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협의회'가 창립됐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협의회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에 적운 스님(경주 골굴사), 부회장에 주경(서산 부석사) 금강(해남 미황사) 성전(남해 용문사) 월도(춘천 삼운사) 법원(논산 지장정사) 보인(양평 용문사) 적조(서울 길상사) 스님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선운사 주지후보 법만 스님 선출



고창 선운사 주지 후보에 법만 스님(선운사 참방암 선원장 · 사진)이 선출됐다.

법만 스님은 3월 5일 선운사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96표 중 54표를 얻어 38표를 획득한 범여 스님을 제치고 차기 주지 후보에 선출됐다.

법만 스님은 1982년 사미계, 8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선운사 재무국장,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3월 26일 개원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6일 오전 10시 개원해 30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결산종회에서는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법 개정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종회는 26일 개원 후 중앙종무기관 결산 검사 등을 한 뒤 28일 오후 2시 속개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도의국사 수법 · 구법기념비 선다

조계종 추진위, 中 강서성 우민사 · 보화선사에

중국 강서성 남창시 우민사(구 홍주 개원사)에 '도의 국사 수법기념비'가 설립된다. 또 강서성 감주 공공산 보화선사(구 서산당)에는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가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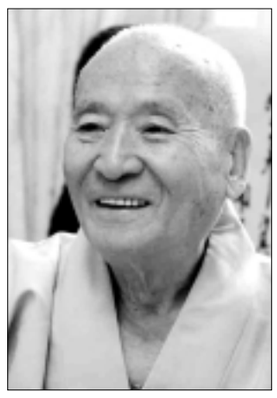
조계종조 도의국사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수법기념비를 세운 뒤 곧이어 구법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수법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은 〈조당집〉 중 '광부의 보단사에 가서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고…다음에 강서 홍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지장에게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고, 의심을 풀고, 막힌 체증을 푸니, 서당대사는 마치 돌 틈에서 옥을 고른 듯하고 조개껍질에서 진주를 주워 낸 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그리고 이름을 도의로 고쳐주었다'라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지관(총무원장) 자승(중앙종회의장) 법등(호계원장) 청화(교육원장) 혜총(포교원장) 현문(총무부장) 탁연(문화부장) 지원(사회부장) 향적(불교신문사장 대행) 정휴(중앙종회의원) 보선(중앙종회의원) 성직(중앙종회의원) 장적(중앙종회의원) 지준(중앙종회의원) 운달(중앙종회의원) 지환(동화사 기본선원장) 영진(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스님과 자문위원인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조영록(동국대 명예교수) 이은윤(금강불교 편집인)씨로 구성됐다. **남동우 기자**

"억겁토록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 입적…평생 염불 원력 '귀감'



설산 스님.



영결다비식이 3월 9일 정토사에서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염불 수행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한국정토학회 고문)이 3월 6일 오후 6시경 입적했다. 법랍 75세, 세수 90세.

스님은 "아미타불 부처님 부지런히 정진하였네. 꿈 가운데 구십년 뜬구름 인 것을 오늘에야 이 일을 밝게 알았네. 억겁토록 신령스러운 이 지혜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은 3월 9일 오전 10시, 입적지인 정토사에서 봉행됐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염불수행자로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설산 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5세 때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계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으며, 건봉사 강원과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를 시작해 10안거를 성만하기도 했다.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의 수법제자가 돼 화합종단의 조계종 종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으로 있으며 경론을 강의하는 등 선승의 길을 걸어 왔다. 그래서 스님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교학(三藏敎學)은 물론 선지(禪旨)에도 밝으며 항상 석문(釋門)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에 앞장서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염불도량인 건봉사에서 출가하고 생활한 탓인지, 염불수행을 하고 싶다는 원력이 항상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건봉사를 보고, 염불수행의 맥을 잇겠다는 결심을 한 스님은 서울에 정토사를 세웠다. 스님은 1974년 5월 건봉사에서 250여 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만일염불정진을 발원했다.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수행을 계속해 왔다.

스님은 평소 "염불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입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집중해야 공덕이 쌓인다"라며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해왔다.

특히 스님은 2001년 10월 25일 27년 5개월만에 염불도량인 건봉사 창건 이후 여섯 번째로 만일염불결사를 회향했다. 만일염불수행을 마친 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 죽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로써 염불을 하겠다"며 도선사, 능인선원, 염불선원, 정토사 신도 및 전국만일염불회 회원 900여 명과 만일염불수행을 입재하기도 했었다. **김원우 기자**

개항기에서 8 · 15까지 불교역사 조명

조계종 '불교근대화…' 발간



개항기부터 8 · 15 해방까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교사연구위원회의 첫 번째 연구 보고서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에는 개화기 사찰, 불교교단의 변천, 사찰령과 사법, 불교혁명론, 중앙불전, 수좌대회, 조계종의 종조 · 법통 인식, 근대불교학, 불교의 타종교 인식 등 근대불교사의 중요한 테마들을 담고 있다.

한편 불교사연구위원회는 올해 '한국 현대불교와 조계종'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 △정화주역의 정화사상(성철 · 청담) △비구승 · 대처승의 화합 △불교정화와 종조 문제 △조계종의 성립과 승가의 이념 △농지개혁과 사찰농지 변동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봉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축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이신 임제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나옹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종헌, 종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창종법요식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총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불교계 시민사회활동 '파란불'

조계종, 단체 지원 위한 진흥법 제정…각종 포상 규정도

조계종이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 시민사회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그동안 예산확보 등 체계화되지 않았던 불교시민사회활동을 법제화시키고 종단이 인정한 시민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관리 후원할 것으로 보여 불교시민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불교사회활동의 범위와 지원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가 마련한 진흥법안을 살펴보면 '불교시민사회활동'을 종단 및 종도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 노동, 여성, 통일, 재해구조 등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의 사회활동이라고 범위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총무원은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찰은 행정 및 재정 지원 요청시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예산 외에도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긴급구호가 필요한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사회활동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한편 사회부는 오는 3월 14일 종단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 한 뒤 6월 임시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종책 · 각종제도 개선 위한 연구소 설립

실천불교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추진 등 사업 계획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효림)는 3월 8일 성남 봉국사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종책연구기관인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설립이다. 이 연구소는 법안 스님이 소장을 맡고 법조인, 경영인, 정부부처 경험자 등 재가불자 전문위원 10인 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종책 핵심 의제 개발 △종헌종법 개정안 마련 △종무행정 체계 연구 △중앙종회 및 종정기구 기능 역할 연구 △종단 및 사찰 재정 확충에 대한 비전 제시 △불교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스님 노후복지 대책 방안 연구 △종단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등 종책 및 불교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연구소에서는 체계적인 연구 기능을 도입해 중단기적인 종책 과제를 생산하고 종헌종법 등 종단 내외의 법률 체계 정비와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월 1~2회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며 비판과 견제 중심의 종책 연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종책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캄보디아 지원사업,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업 불교추진위 구성, 2007 불교평화생명포럼 개최 등이 논의됐다.

김주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 조계사 음식물쓰레기 '0' 도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개발 및 상호협력을 위해 조계사와 '빈그릇 운동 협약 체결식'을 3월 20일 오전 11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갖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음식물을 남김없이 먹자'는 취지의 빈그릇 운동을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계사에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지원을 하게 되고 조계사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각종 홍보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계사는 신도 20~30인 규모로 '환경실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수행'과 '복지'는 같은 말!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시설종사자 · 봉사자 대상 간화선 교육 '효과'

수행과 복지. 자칫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두 분야가 만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용권)는 불교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월 6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6일 오후 7시,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복지재단 법당을 찾은 실천가들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추교선 관장과 옥수연꽃어린이집 정명자 원장,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이봉해 관장 등 40여 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직할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그리고 조계종 직할 자원봉사단 회원들이다.


불교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

간단한 입재식 후 무각 스님의 참선 지도가 이어졌다. 무각 스님은 "12주간의 교육 후 봉사와 자기수행이 괴리 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속에서 자기를 확연히 바로 보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행의 회향처는 늘 보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10여분 남짓 진행된 무각 스님의 참선법 설명에도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힘들어 한다.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재숙(30) 팀장은 "전에는 무교였는데 불교계 복지시설에 일하다보니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수행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됐다"며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고령 참가자인 봉화회 정옥진(75) 회장은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12주간 매주 2시간씩 참선과 수행일기 쓰기를 하며 간화선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한편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불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日서 증언집회 개최

나눔의집 강일출 할머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는 없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거주하는 강일출(80) 할머니가 3월 8~11일 일본 홋카이도 증언집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15일 김군자(81)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참가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증언집회 참가다.

세계여성의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 집회실행위원회와 오비히로 노동연합의 초청으로 일본에 간 강 할머니는 8일 아사히카와 시민문화회관에서 첫 증언집회를 시작으로, 10일 오비히로 도카리플라자, 11일 쿠시로 인권센터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증언했다.

여수령 기자

국회 정각선원 신중탱화 점안 '성료'

국회 정각회(회장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허태수,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는 3월 5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신중탱화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영주 부석사 조실 근일 스님과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 이계진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중탱화 봉안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이해봉 회장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중탱화 조성 봉안으로 국운이 융창하고 국민 모두의 지혜가 증장돼 마침내 성불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 신입생 모집

미래불교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교하자.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묵)가 운영하는 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1호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가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이며, 모집기간은 3월 20일까지. 교육기간은 1년 과정이며, 교육비는 65만원.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생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하는 불교어린이지도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어린이법회 유급 지도교사로 알선해 준다. (02)739-4967

김원우 기자

MBC, 마감뉴스서 사과 방송

월정사 보도관련, 언론조정에 합의

'월정사와 도피안사 등의 사찰이 문화재 보수지원비를 유용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낸 MBC가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정정보도하기로 했다.

2월 28일 월정사측으로부터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 8일 조정심의를 열고 "MBC는 3월 16일 이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뉴스진행자가 정정보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서별당 기와 보수는 스님 개인 숙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화재 보수지원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불교계의 첫 공식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은 뉴스데스크 대신 뉴스24에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장 이명묵 교수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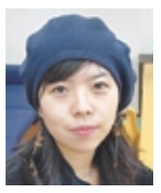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에 이명묵 심장혈관내과 교수(사진)가 3월 5일자로 임명됐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6일 "이명묵 교수가 제 2대 동국대 일산병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2년간 동국대 의료사업부문을 이끌어온 이석현 원장은 의료정책고문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묵 신임 일산불교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의대 교수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윤효정양 첫 수혜 금강대 해외학비 지원



천태종립 금강대가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한 '우수졸업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제도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금강대 1회 졸업생으로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에 진학한 윤효정양(사진).

윤 양은 3월 6일 금강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양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 연간 약 2천만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김원우 기자

'종교비자' 아세요?

"종교단체 · 직업종교인 위한 것"

美 대사관 설명회

미국대사관 영사과는 3월 5일 조계종 총무원 내 국제회의장에서 '종교비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특강에 나선 베드팍스 영사는 "종교비자(R비자)는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직업종교인을 위한 비자를 의미한다"며 "자격은 면세기관과 관련된 합법적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교단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드팍스 영사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직전 최소 2년간 동종 교단에 소속돼야 하며 교단의 요청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규정한 전통적 종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종교비자를 가진 성직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며 "종교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2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성명서

냉정한 국제자본주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불교인의 입장을 국민들께 호소 하고자,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대 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불교는 부처님의 진리아래 민족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 해 왔으며, 민초들의 애환을 위로하며 중생들의 맑은 영혼을 위하고, 재개 불자들의 수양을 위한 지표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최근, 황 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식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1년을 되돌아보면, 미래 생명공학의 선점을 위해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황 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유려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교TV(BTN 특별기획)는 작년에 2 차례에 걸쳐 황 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려 사회적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였다.

불교TV는 "미국 새튼의 음모와 NT-1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BTN 특집프로가 방영을 하였으며, 방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 우석 박사의 논문에 오류가 있다고 하지만, 교신저자인 미국 새튼이 황 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를 도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NT-1이 처녀생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과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불교TV라는 공신력으로 전 국민들이 황 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 하였으며,줄기세포 특허기술의 진위공방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한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하는 의지나 진정성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황 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가 조금 앞섰다고 해도 과학적 인프라와 자본력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조만간 원천기술을 강대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제 줄기세포 허브를 구성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와 경험이 한국에 집결되도록 노력하였고, 그것을 통해서만 줄기세포에 관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명공학을 선도하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과학자이자 애국자였다.

황 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기술특허료는 시장이 들어서면,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보고한 바대로, 향후 연간 360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기술주권이며 엄청난 국익창출의 원천이다.

황 우석 박사는 논문상에 데이터 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인 배반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동물 복제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이다.

황 우석박사는 정부와 국민에게 '한시적 연구재연' 기회만이라도 주어진다면, 6개월 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 성과물에 오류가 발생 했을 때는 국제관례로도 해당 과학자에게 1년의 재연기간을 주는 것이 통례이며,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재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황 우석박사에게 연구재연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줄기세포의 재연실험은 줄기세포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며, 대한민국이 미래생명공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원천특허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다.

미래 생명공학의 첨단기술인 줄기세포 기술은 선진국에서 국운을 걸고 연구하고 있으며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진행 시키고 있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세계줄기세포 연구의 종주국을 자처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만 생명윤리법에 가로 막혀 사실상 연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숭고한 연구이자,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자비사상을 실현시키는 학문적 과학적 실천 행위인 것이다.

2005년 공동논문 저자이자, 아메리카 연방보건국의 자문위원인 새튼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 우석 박사의 원천기술과 특허출원 내용을 도용하여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직도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기득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득권은 매국세력에게 장악 당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국난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은 황 우석 박사의 특허와 원천기술을 지키려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우리 불교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구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의 주장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기를 정부와 대한민국 과학계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결 의 문 -

1. **황 우석 박사의 논문에 나타난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는 황 우석박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재연을 빠른 시일내에 승인해 주어야한다**
1. **서울대조사위의 'NT-1 처녀생식' 발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내외 중립적 관련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1.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모두 실질적인 연구에 장애물이 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배아연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생명위원회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면 재구성 하여야 한다.**
1. **전 국민 76.8%가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대 국민 성명서 참여 종회의원 명단

돈관	선광	무자
진화	의연	덕문
각원	상운	혜오
법광	노현	자현
지현	원담	정범
장적	장윤	수현
도문	일법	운달
계호	경륜	혜원
일초	성정	일운

※종회 의원님들 모두 다 찾아 뵈어야 했으나, 사정상 미처 찾아뵙지 못해 서명에 동참을 하지 못하신 종회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새싹불자 위한 최상시스템 갖춰

영남불교대학 '참좋은유치원' 개원



3월 5일 열린 '참좋은유치원' 입학식 모습.

대구 영남(한국)불교대학 부설 '참좋은유치원'이 3월 5일 개원됐다.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2월 14일 어렵게 개원 허가를 얻은 참좋은유치원이 보름간의 짧은 원아모집기간을 통해 4개반 100여명의 원아를 모집해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영남(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과 조계종 포교부장 동범 스님, 영남불교대학 김상길 신도회장과 학부모 및 지역 교계 불자 등이 참석해 참좋은유치원의 개원과 유치원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이라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참좋은유치원은 뒤늦은 인가로 원아모집기간을 갖지 못해 7개반의 입학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최상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1년 안에 전국 최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영남불교대학은 5대의 대형버스와 작은 골목을 연결하는 4대의 소형버스를 갖추고 미래의 새싹들이 자라날 수 있는 최상의 시설을 갖췄다.

4개반 100여명 원아 입학
자체 교육평가제도 등 도입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심혈

참좋은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연건평 2600평 규모의 옥불보전은 2004년 9월 1일에 착공해 지난해 봄 완공됐다. 옥같이 티없는 천진불의 모습을 간직한 어린이들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지은 옥불보전의 모든 건축자재는 친환경적 소재로 사용됐다. 시설 또한 최첨단 디지털 영상 시스템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시설로 조화를 이루었고, 옥상에는 자연생태공원과 수영장을 두어 도심 속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전한 인성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9월 6일 참좋은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설치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재연구소'에서는 불교적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불교아동음악연구소'에서는 찬불동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인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는 우학 스님은 "앞으로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볼 때 유치원 건립이야말로 종립학교 건립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앞으로 지역불교계 유치원운영자간의 교류를 통해 교육자료 및 교구재 프로그램 개발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범 스님도 "전국불교계 유치원 운영자들 간의 워크숍 등을 통해 불교적 정서 속에 어린이 인재불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되돌아 온 해인사 사리병 공개



40여 년 전 도굴 당했던 통일신라시대 은제(銀製) 사리병(사진)이 합천 해인사에 되돌아와 오는 4월 공개된다. 은제 사리병(높이 2.5㎝, 입지름 0.9㎝)은 4월 1일 재개관하는 해인사성보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1966년 도굴당한 해인사 입구의 묘길상탑에 들어있던 것으로, 1970년대 중반 묘길상탑 주변의 풀을 베던 스님이 발견해 보관해오다 최근 기증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회암사지 전시관' 기공식



양주 회암사지 전시관 조감도.

발굴 결과 왕실사찰로서의 위용을 드러낸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를 보여줄 '회암사지 전시관' 기공식이 3월 6일 열렸다. 기공식에는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과 봉선사 혜문 스님, 임충빈 양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암사지 전시관은 양주시 율정동 회암사지 정비사업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천여 평 규모로 건립된다. 91억 원이 투입돼 2009년 3월 준공되는 전시관은 지상 1층은 회암사의 역사와 발굴과정 등을 보여주는 전시실로, 2층은 문화체험실과 기획전시실로 꾸며진다. 지하 1층에는 발굴유물을 보관할 수장고가 마련된다. 여수령 기자

중국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3월 17일 '중국사상과 불교'를 주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박철웅 홍익대 강사가 '왕양명 치양지설의 중층구조와 선학적 사유'를, 김영진 BK사업단 연구원이 '장자 제물론에 대한 장태염의 유식학적 독법 및 그 근대적 특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02)733-5311 여수령 기자

"한국의 맛·문화에 고개 숙여져요"

미주 금강경독송회, 페닝턴市서 한국알리기 행사

미국 뉴저지주의 페닝턴 시에 김치 바람이 불었다. 뉴저지 시민들은 김치와 된장 두부 맛에 매료됐을 뿐 아니라 한복의 아름다움과 부채춤 탈춤 등에도 넋을 잃었다.

지난 2월 25일 페닝턴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미주 금강경독송회가 마련한 '한국의 맛 한국의 멋' 행사였다. 한 달 전부터 미주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연등을 만들고 공연 준비를 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페닝턴시의 시민 300여명. 궁중무용 '태평서곡'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세배와 전통 혼례 등 풍속의식 시연과 탈춤 북춤 부채춤 등의 무용공연, '감은사지 사리함' 등의 DVD 관람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 것은 두부 김치 등 한국 대표 음식 만들기와 시식, 된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은 "세계최고의 발효식품"이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300여명 초청 궁중무 등 공연
'감은사지 사리함' 등 DVD 관람
김치 시식 "세계 최고 발효식품"

바네사 샌돈 페닝턴 시장은 미주 금강경독송회가 선물한 한복을 차려입고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받았다. 샌돈 시장은 "저는 오늘 반은 한국 사람이 된 느낌이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손수 만든 연등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없이 행복하게 한다. 한국을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들의 한국사랑을 부추겼다.

참가자 윌러 리차드(70, 교육자)씨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금강경독송회가 훌륭한 정신의 세계를 이 땅에 더 깊이 심어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 가을부터 미주지역은 물론 유럽의 각국에 '성웅 이순신' '세종대왕' 전기 읽기 운동을 펼쳐 각각 6만여 권의 책자를 보급했다. 앞으로 '한국의 맛 한국의 멋' 행사를 각 지역에서 펼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국음식 만들기에 참가한 페닝턴 시민들이 진지하게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선남선녀 만나요

옥천 대성사 불교박람회서

"불교박람회에서 선남선녀들 만나요."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3월 22~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불교 박람회에서 따뜻한 만남 회원들을 초청해 법회 및 불교박람회 관람행사를 갖는다. 또 서울 경기지역 선남선녀 만남의 시간도 마련된다.

참석하는 회원은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준비서류 반명함판 사진2장. 호적등본1통 등이다. 다음카페(cafe.daum.net/dasungsa), 대성사 홈페이지(dss.or.kr) 회원 가입은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벤트를 마련한 혜철 스님은 결혼 적령기 선남선녀의 만남을 주선해 지난 2년 동안 50쌍을 결혼시켰다. 김원우 기자

운영비 대부분 설립자가 충당

사립박물관 실태조사 보고서 나와
학예사 평균 근무기간 30여개월

국내 220여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50% 정도는 설립자나 관장 개인이 운영비를 부담하며,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1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예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30여 개월에 불과한 등 박물관 운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전보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사립박물관 실태조사 및 한국사립박물관의 장단기 진흥방안>을 발간했다. 최병식 교수(경희대 미술학부)와 연구진 15명이 지난 1년간 현장·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찰 성보박물관을 포함하는 국내 사립박물관에 관한 현황파악과 실태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의 28%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5천만원 미만인 곳도 20%이나 된다. 사립박물관의 운영비는 전체의 50% 정도가 설립자나 법인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입장료와 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비율은 각각 16%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사립박물관이 사립 자선단체 지원금(35%)과 정부 지원금(25%)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자못 대조적이다.

최병식 교수는 "정부는 전문적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보삼 회장(만해박물관장)은 "그간 사립박물관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조사보고서가 사립박물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상표등록

미스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kWh)	요금(원)	사용량(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 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래도록 경험많은 기술진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전화 031)792-8867~8 팩스 031)791-8871

“나무 해다 주고 청소도 하고…절일 그냥 다 해 줬지”


진현동 중리 마을.


대웅전 위에 있는 비로전.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⑤ 토함산 불국사

호텔·식당 벗어나 중리마을 “…고걸 합해서 진현동이라”
‘우말’ 동네 이름도 없어…현재 상가 두 번 철거 후 형성
절까지 운행 수단으로 코끼리 열차 계획, 주민 반응 냉냉

꽃샘이 지독한 날이다. 3월인데, 길바닥에는 언 곳이 많다. 진눈깨비도 흩날린다. 평일이어서인지, 오가는 사람이 드물다.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과 절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단지가 된 식당과 숙소들을 지나 절로 향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니는 사람은 가뭄에 콩 나듯 보인다. 한참을 올라갔더니, 절 조금 못 미치는 곳에 할머니 두 분이 나물과 밭작물 몇 가지를 놓고 팔고 있다.

불국사는 절집 중 가장 완벽하다는 느낌이다. 신라인들의 이상적 피안이었던 불국. 현실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의지가 불국사를 낳았을 것이다. 불국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여래의 사바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이며, 마지막 하나는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이다.

극락전 처마 아래에서 발견된 멧돼지상이 화제가 되어, 불국사에서는 ‘복돼지 출현 100일 기념 법회’를 열고 있다. 안양문을 지나 극락전으로 향한다. ‘안양’이란 극락정토를 이르는 다른 이름이니, 의미는 바로 통한다. 국보 27호인 아미타불을 배알한다. 이어 대웅전으로 향한다. 극락전에서 대웅전으로 가려면 몇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한다. 불국사를 만든 이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배치이다. 대웅전보다 조금 높은 곳에는 불법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전이 있다. 지권인을 취한 비로자나불은 내 안의 부처를 찾으라며 설법을 한다.

“거 사는 사람들은 거 살고, 여 사는 사람들은 여 살고, 여는 중리 마을. 요 위에 가면 돌박이 있고, 요 아래 가면 아랫말 있고, 조 밑에 가면 문리 마을. 저 위에 새마을이라고 있고, 또 상가들 있고, 저 꼭대기 가면 진터라 있고, 고걸 합해서 진현동이라.”

마을 소개가 끝난 후, 마을과 절이 무슨 관련이 없냐고 물었더니, 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옛날에 불국사 나무 때고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나무 해다 주고 그랬어요. 요새 스님들은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무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냐?”

말끝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있다. 곁에 있던 김해봉옹(70)이 말을 꺼낸다.

“도로 파손되면 옛날에 부역이라고 있었어요. 일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해 줬어요. 지금 있는 스님들 그런 시대를 모른다고. 옛날 주지 스님이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최상문씨라고. 강원에 있었던 사람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동네 사람이었고, 오공필이라는 사람도 개곡 사람인데 이 동네 와서 살다가 석굴암 주지를 했어.”

스님들의 속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다.

“결혼 했다카면 다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난기라. 가족은 다 이 마을에 살았지.”

어렸을 때, 꼴 베러 토함산에 갔다가 초파일이면, 사과며 배 같은 과일을 얻어먹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공양한 음식이 배고픈 이들의 입으로 들어갔으니,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다. 절 앞에 있었다는 마을 이야기도 나왔다.


석가탑.

“불국사 우말이라 캤어요. 진현동 우말이라 캤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름도 없어졌어요.”

현재 생긴 상가도 두 번의 철거를 거쳐 형성된 것이라 한다. 썰렁한 상가 건물 주위에 코끼리 열차 운행을 반대하는 상가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주차장에서 절까지의 거리가 상당하므로, 경주시와 절 쪽에서는 운행 수단을 강구하는 모양인데, 상가 쪽과 마찰이 인 것이다.

취나물, 싸리대, 철쭉대, 잔대(참딱주) 등 이름도 풋풋한 나물들이 어우러진 산채 비빔밥은 성과 속의 사이에서 잘 비벼졌다. 철쭉대 나물을 먹는데, 문득 백석의 ‘여승’이란 시를 떠올랐다.

불국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참 나’를 찾아가는 **원명신** 보살

“부처님 닮을라믄 날마다 부처님에게 절 해야지”



매일 아침 석굴암으로 출근을 하여, 점심 공양이 끝난 후 절에서 나온다는 원명신(60. 경주 구정동 · 사진) 보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목욕탕에나 다니겠죠.”

그녀는 경주 시내에서 도보로 석굴암까지 오간다. 오는 데만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다. 힘들지 않느냐는 말에 웃음으로 답한다.

“부처님 닮을라믄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이나 해야지요.”

불교에 귀의한 지가 17년 되었다는 그녀. 기복에 얽매였던 지난 시절에 대해 한참이나 이야기 한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했다는 그녀. 하지만 인연이 닿은 큰스님의 설법을 듣고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 전에는 기복을 다녔거든요. 울산 문수암 하면 다 알잖아요. 시댁 어른들 따라 기복을 다녔는데, 그 기 아이더라고요. 그래. 참 나를 찾는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칠팔년 됐지요.”

‘기복’과 ‘참 나’라는 말에서 깊이가 느껴진다.

“여덟시에 와가지고 저기 석굴암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래 예불 마치고나면 이 시간 되지요.”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석굴암에 있는 부처를 뵌다고 하였다. 정성이 보통이 아니다. 매일 두 시간 이상을 걸어서 찾아가는 자기 안의 부처를 찾는 그녀. 그녀의 마음밭에 파랗게 돋아나는 새싹들이 보일 것만 같았다.

“한 법당에 가면 팔십 프로는 아니에요. 빈다고 있는데, 누구한테 빕니꺼.”

맞는 말이다. 제 안의 부처를 두고, 부처상을 향해 빌기만 한들 무엇이 이루어지랴. 세상의 인연치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던가. 찬 바람 한 줄기가 이마를 쳤다.

일주문



임시이사회 및 정기총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15일 서울 하림각에서 오후 2시부터 임시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34-8050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3월 3일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 신임공동대표로 추대됐다. 현재 6·10 항쟁계승사업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백일법회 봉행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3월 14일 오전 11시 '중창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백일자 법회'를 법왕루에서 봉행한다.(02)3218-4801



민주항쟁 사업추진위 상임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의장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이 2월 28일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 상임대표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린포체 초청 국제보살계 봉행

법성 대구 도광사 주지스님은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국제보살계 및 소원성취기도법회'를 3월 18일 오후 1시 대구 대명동 도광사에서 봉행한다.(053)-653-8583



자비의전화 정기총회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3월 20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37-7378



민간인 성직자 위촉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3월 6일 제37 보병사단의 민간인 성직자로 위촉돼 장병들의 종교 활동과 심성 순화를 돕는다.

"대승의 바른 믿음이 신행의 토대"

'대승기신론' 강의 여는 공파 스님



"원효 스님의 위대성을 백번 천 번 말하는 것보다 그 분의 사상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여서 그 사상을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강의를 원효센터(부산 대연동)에서 열고 있는 공파 스님(사진)은 원효 스님의 원융, 화쟁 사상이야 말로 이 땅의 갈등과 분쟁, 반목을 극복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역설한다.

원효 전집을 펴낸바 있는 공파 스님은 강원에서도 3~4개월에 그치는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1년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효 스님의 해동소·별기를 교재로 일반인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5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이 논서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배워 신앙체계의 토대를 바르게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원효 스님의 저서 302권 중 가장 뛰어난 논서로 통하는 해동소에는 총 6권 중 2권까지만 해도 78권의 경, 율, 론을 인용했을 만큼 해동소 한권을 보면 전체 경율론을 꿸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신라가 천년의 평화를 누리는 중심에는 원효 스님의 화쟁, 원융 사상이 있었다"는 공파 스님은 "시대적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해 원효 스님의 정신을 살려내는 일은 초종파적, 초국가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대승기신론소는 어렵다'는 관념 때문에 배우기를 기피하는 불자들을 향해 스님은 이렇게 일갈한다.

"어렵다고 수준을 쉬운 쪽으로 맞추어 가다보면 불교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원효 스님이 설해놓은 불교의 바다 속으로 뛰어 들 것을 권유했다. 개강은 3월 17일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051)611-3808

천미희 객원기자

선리연구원학술상

김진무 교수 등 수상

선학원, 시상식은 6월


김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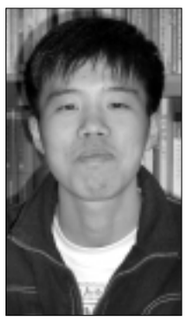

김진무


남무희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시상하는 제1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수상자에 김문경(백양사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무희(국민대 국사학과 강사)씨가 선정됐다. 선정 논문은 김문경씨의 '조선후기 백양사의 경제활동'과 김진무씨의 '승조(僧肇)의 비유비무(非有非無) 논증(論證)과 그 의의', 남무희씨의 '원측의 유식사상과 당대 화엄종과의 영향 관계'다. 논문은 선리연구원 논총인 <선문화연구>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대불련 중앙회장에 조용석씨 '조직 재정비 역점'



"기초적인 것을 정비하고 데이터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월 28일~3월 1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45년차 중앙회장에 선출된 조용석씨(전남대 사회학과 02학번·사진).

조 회장은 "지금 대불련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여기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나아가며, 기초를 튼튼히 한 뒤 그 초석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상반기에는 새내기 포교 지원과 등록에 집중하여 조직을 재정비한 뒤 하반기에 160개 지회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수석 유기현씨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2월 25일 열린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고시에서 수석한 유기현씨(48, 욕실컴 대표·사진).

현재 서울 화계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활동 중인 유씨는 "아이가 3명이나 되는 동료 교사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함께 대한불교교사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게 됐는데 많은 것을 배웠고, 수석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는 유씨는 앞으로 "포교원의 '찾아가는 법회'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 법회 후원자 모집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방대학원대 입학식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는 3월 5일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사장 운산 스님, 정상옥 총장 및 교수진과 입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정상옥 총장은 입학전례사에서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개교한 만큼 동방문화의 학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새봄맞이 특강



한국불교연구원은 3월 7~9일 '현대인의 불교'를 주제로 새봄맞이 특강을 개최했다. 원장 정병조 교수(동국대)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미래 불교의 관건은 '불교사회화'에 있다"며 "진여(眞如)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협약 체결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과 의료복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대 동대문병원은 정기적인 무료검진서비스, 건강강좌 등을 펼치게 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불교대 입학식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의)은 3월 6일 제1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130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1년 동안 불교 기초교리 및 역사 등을 배우게 된다. 각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타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축구단 회장 취임



대한불교원주축구단은 3월 6일 원주 성불원(주지 현각)에서 2대 원건상 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지도법사인 현각 스님과 정두환 명예회장 등 축구단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원건상 회장은 "스포츠포교를 위해 탄생한 원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엄불사" 시멘트의 한식조각물 성형으로 죽림 불교 건축이 제작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정신의 혼을 담은 전통 죽림 불교 건축

새로운 한국 전통건축 창조에 노력하는 죽림건축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서가래양생


▲부연


▲공포


▲외삼포 조립과정


▲요사채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현장시공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익공


▲이익공

◆단청 불사
◆기와 불사
◆닫집, 탁자 불사
◆콘크리트 PC 법당
◆목조 건축 불사
◆요사채, 납골당
◆문중 제실 공사
◆문화재 보수 업체

설계에서 시공까지

죽림 불교 건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204-5
TEL 031)285-5818 / H·P 010-3160-3689



동안거 해제 전날인 3월 3일 충주 석종사 시민선원에서 '자자'를 하고 있는 불자들.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맨 왼쪽)부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했다.

석종사 시민선원 '자자(自恣)' 현장

스스로 허물 드러내 삼배로 참회

벽력같은 고성 "왜 밥 갖다 먹어!"

"입승(立繩)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입승은 부처님 법을 잘 따르고 스님도 한번 믿으면 철석같이 믿는 등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혹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후)왜 밥을 갖다 먹어!"

벽력같은 소리가 일었다. 일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숨조차 내 뱉을 수 없었다. 혼자 방에서 공양을 한 적 있었던 입승은 "참회합니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불호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거사 청중(淸衆) 차례였다.

"청중 소임을 맡았지만 대중화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할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야 돼. 어떻게 청중이 대중들 앞에서 언성 높이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세 철 동안 방부 못 들여. 걸망지고 가!"

혜국 스님은 단호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았다. 서슬 퍼런 기운이 석종사 보월당(시민선원)에 가득 찼다.

"거사 청중과 보살 청중은 모두 큰 절하고 참회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삭발하던 날 고성을 지르며 싸웠던 두 청중이 대중들 앞에 삼배로 참회의 뜻을 보였다. 그러자 혜국 스님의 얼굴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죄 놓았기에 죄에 자유스러워지는 것"

병술년 동안거 해제일 하루 전인 3월 3일, 석종사 시민선원에서 자자(自恣)가 열렸다. 자자란 안거(安居) 마지막 날 함께 안거를 보냈던 사람들끼리 안거 기간의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지적받는 의식이다. 혜국 스님이 자자에 대해 설명부터 하기 시작했다.

"자자란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대중들에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혜국 스님은 부처님 예를 들었다. 부처님이 해제하는 날 결제 때 남몰래 좌복 하나 더 쓴 일을 고백했다. 누군가 좌복에 물을 흘려 얼룩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그러자 가섭과 아나율 등이 나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만류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런 사소한 잘못을 그냥 넘어간다면 큰 잘못도 넘어가 버린다"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렇게 다음 순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허물을 내놓고 지적하며 참회했다.

"죄를 대중들에게 내놓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자를 선방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한 번 해보세요. 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비심으로 해야지 감정이 개입되거나 악한 생각으로 한다면 자자를 망치게 됩니다."

"독하게 맺힌 것이 있어야…" 공부 독려

부처님 당시처럼 혜국 스님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선원장으로 결제중에 외부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제중에 나가는 것은 참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소리를 자주 질렀지만 그것은 규칙을 세우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남에게 열 올리는 모습으로 보였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였다면 참회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참석하기로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몸이 많이 힘들어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것 말고 선원장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순서로 내려갔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정진을 몇 번 빠졌습니다. 참회 드립니다. 또 포행 중 여러 신도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도 참회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저에게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었다. 몸이 아파 몇 차례 정진을 빠뜨린 것에 대한 참회였다. 아침 공양 뒤 자주 잠을 청했던 한 스님도 혜국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공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독하게 맺힌 게 있어야 이룰 수 있다"며 "맺힌 것을 채우도록" 채근했다. 또 "공부는 때로는 매몰차게 해야 한다"며 자신만의 길을 매몰차게 가도록 권유했다.

혜국 스님, 그릇 키우기 위해 악역 자처

혜국 스님은 조각조각 난 죽비를 보여줬다.

"나는 이걸로 때리지만 성철 스님이나 전강 스님은 물푸레 회초리 등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혜국 스님은 남에게 욕을 하면 인심 잃는 게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사람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스님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라며 수행자들의 욕 듣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불문에 들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지월 스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았던 지월 스님은 장군죽비로 정진하는 스님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 지월 스님의 장군죽비를 분질러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어른 체면에 말이 아니었지만 지월 스님은 어디선가 장군죽비를 구해와 다시 지도에 나섰다. 이 모습을 본 혜국 스님은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요즘은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검받는 사람이 없다"는 혜국 스님은 "안 받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곧 점검해 줄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충주 석종사/글 · 사진=남동우 기자**



혜국 스님이 죽비를 들고 '자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는 불자들.



석종사 시민선원에서 정진중인 불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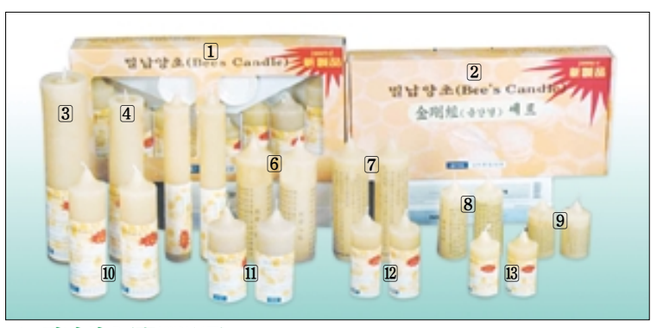
거사 청중이 대중들에게 삼배로 참회하고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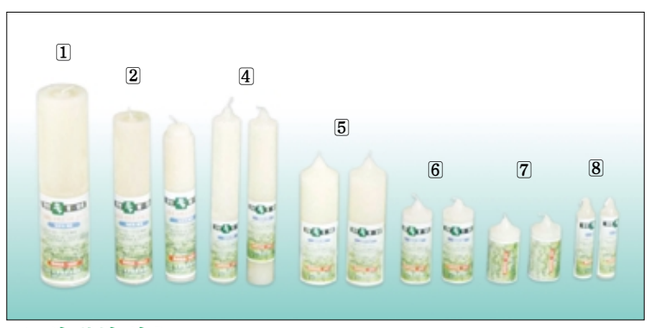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 × 30Cm
2 돈타레 5.6φ × 27Cm
5 약쑥향 1호 5.9φ × 20Cm
6 약쑥향 3호 4.7φ × 13Cm
7 약쑥향 4호 4.7φ × 10Cm
8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0> 세상의 명성과 이익을 좇는 어리석은 스님

보통 선가(禪家)에서 많이 쓰는 말로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눈길 한 번 주는 법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결처럼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스님들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삶을 사는 수행자를 '할 일 없는 도인'이라고 하니, '운수도인(雲水道人)'이라 말하기도 한다. 또한 한가로운 삶 속에서 상큼하고 맑은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분이므로 '청풍납자(淸風衲子)'라고 말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런 본디 모습을 망각하고 분수에 넘치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아 세상살이에 연연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을 '명리납자(名利衲子)'라고 한다. <선가귀감> 60장에서 말한다.

名利衲子 不如草衣野人.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는 수행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산골사람만도 못하느니라.

수행자로 풀이한 '납자(衲子)'는 낡은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납(衲)'은 낡은 천을 더덕더덕 기워서 만든 누더기 옷을 말한다. 세상에서 쓰다버린 낡은 천 쪼가리를 여러 개 이어 옷을 만들다 보니 그 쪼가리 천의 숫자가 많아졌으므로 '백납의(百衲衣)'라 말하기도 하고, 천 조각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 오색(五色)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됨으로서 '오납의(五衲衣)' 또는 오색의(五色衣)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옷차림에서도 스님네의 진솔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린 수행자에게 옷이란 세상 사람처럼 신분과 부귀를 드러내어 뽐내는 허영의 도구가 아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산속에서 고행하며 검박한 삶으로 오로지 수행에 힘쓰며 살아가는 스님네를 세상에서 존경하는 의미로 '납자'라고 부른다.

누더기 옷 한 벌만 걸치고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결처럼 사방으로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본 모습을 망각하고 분수에 넘치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아 사

수행자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위선자
세상의 헛된 욕망에 끄달림 없이 정진해야

치스럽게 사는 수행자를 '명리납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원효 스님은 "수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 쓰는 것이요 도인이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빠져나오지 못할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行者羅網은 狗被象皮요 道人戀懷는 蝟入鼠宮]"이라고 말하였다. 공부길을 벗어난 명리납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산골사람만도 못하기에 서산 스님은 말한다.

唾金輪入雪山 千世尊 不易之軌則 末世羊質虎皮之輩 不識廉耻 望風隨勢 陰媚取寵 噫 其懲也夫.

왕이라는 높은 자리도 버리고 히말라야 설산에 공부하러 들어가는 일은 모든 부처님이 본받았던 바뀌지 않을 수 행자가 따라야 할 영원한 규범이다. 그런데 말세에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무리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바람몰이 세력을 좇아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만 애를 쓰니 아! 잘못된 그 모습을 뉘우칠지어다.

'타금륜입설산(唾金輪入雪山)'은 '황금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에 침을 뱉고 설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금륜(金輪)'은 황금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인데 온 천하를 통일한 전륜성왕만이 타고 다닌다. 이 수레에 침을 뱉었다[唾]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전륜성왕의 높은 자리도 도(道)를 닦기 위해서 어떤 미련도 없이 버렸다는 것이니, 이는 왕의 부귀영화보다 부처님의 세상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설산(雪山)'은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도를 닦기 위하여 수행자들이 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리하셨다고 한다. '천세존(千世尊)'은 '천명의 세존'이란 뜻이지만 사실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 이런 모습을 본받지 않으므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도 세간에서 사라져 참 불법을 배우기 어려운 '말세(末世)'에 이르러서는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무리들이 나타난다.

양질호피(羊質虎皮)를 풀이하면 '양의 성질과 호랑이 가죽'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 한(漢)대의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에 나오는 말이다. 순한 양이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 흉내를 냈지만, 풀을 보면 풀을 뜯어먹었고 승냥이를 보면 승냥이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양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 채 호랑의 가죽만 뒤집어쓰는 것은 진짜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출가한 사람의 마음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제아무리 수행자처럼 잘 꾸며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의 본바탕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데 부처님의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거룩한 수행자처럼 살아간들 거짓된 위선자일 뿐이다.

절집에서 말하는 수행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맑고 깨끗하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삶 자체는 맑고 깨끗하여 주어진 출가자의 삶에 만족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호도 끄달림이 없이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不識廉耻] 세상 권력을 좇아[望風隨勢]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아가는 삶을 좇는다면[陰媚取寵]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양질호피와 똑같은 무리들이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이런 모습을 뉘우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其懲也夫]. 서산 스님은 말한다.

心染世利者 阿附權門 趨走風塵 返取笑於俗人. 此衲子以羊質 證此多行.

세상의 잇속에 마음이 물든 수행자가 권력에 아부하여 바람에 흘날리는 먼지처럼 헛된 삶을 따라 다닌다면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수행자는 겉보기에는 호랑이 같을지라도 그 바탕이 양처럼 어리석으니, 이는 이 말을 증명할만한 수행자의 잘못된 행실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이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 흉내를 내어도 호랑이가 될 수 없으니 그 속내를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옛 글에 "그 누가 알겠느냐? 헌 누더기 속에 온 누리를 밝게 비출 태양이 숨어 있는 것을![수지백납천창리(誰知白衲千瘡裡) 삼족금오철천비(三足金烏徹天飛)]"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운수납자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참회(懺悔)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아주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즉 허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행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필기고사에 나온 문제다. 정답은? '참회(懺悔)'.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참회는 흔히 개신교의 회개(悔改), 천주교의 고해(告解)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느님의 은혜의 세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는 '세례를 받은 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의식절차'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하고 사제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불교의 참회는 '회개' '고해'와 개념이 약간 틀리다. 단순한 반성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참회의 본질이 아니다. 참회는 반드시 반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반성만 한다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다.

진정한 참회란 반성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



인간관

상담심리학은 크게 세 가지 조류로 나뉜다. 그 최초의 세력이 19세기 후반에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 두 번째 세력이 파블로프와 스키너 등의 학습이론을 심리치료에 도입한 행동주의, 세 번째 세력이 로저스가 창안한 인간중심적 접근이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심리 상담에 접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지만 무엇보다 상담의 대상인 내담자, 즉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가정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불교 인간관과 대조

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며, 출생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심리 성적인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초기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보았다.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행동 또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학습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후기에 와서 행동주의는 인간관을 수정해 나갔다.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자유와 의지적 선택을 어느 정도 강조했다.

인간중심주의에 와서야 인간은 좀 더 '인간적'으로 되었다. 로저스는 인간이란 유기체는 자체적으로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가능성을 건설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았다. 즉 인간 존재 속에는 완전한 발달을 향한 자연적 경향성, 다시 말해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현 경향성이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의 원천이 되는 유일한 동기라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한다.

인간이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요, 신에 예속돼 신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피조물도 아니며, 운명에 의해 결정된 피동적인 존재도 아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며 운명조차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는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인간은 각각이 고유한 존재이며, 깨달음을 이루어 생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일정한 한계를 지워둔 상담심리학의 인간관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불교의 인간관은 이렇게 사뭇 대조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정해년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인 태을경과 옥추경 해석을 운명과 바꾸어 출세와 성공에 감춰진 비법을 얻는 운수대통 경신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전생빙의와 중음신 해리의 잡신으로 빙의된 영이 나가면 더 큰 신이 들어오는 것을 회원상생할 수 있는 경신도통은 전생으로부터 빙의된 영가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도,기도,최면,굿 등 방편으로는 관명천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며 관명천으로 보내는 진법계 도법의 주문는 있으나 그 누구도 알지못하므로 경신도통을 하지않고는 하늘이나 땅이나 일체조상 빙의영가들이 광명세계로 천도되여 가는 주문을 모르기에 경신이란 귀신우두머리신이므로 모든 빙의신 중음신 해리신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구랑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제 범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지대도법이 무자천서와 혈단법이 도통경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신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것이다.

정해년 경신은 출세와 명예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에 문관 무관 관록을 엊어 진급 및 정치,경제,문화,사회, 자신이 경영하는 총수가 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 동참으로 경영사업, 결혼 못한 가정, 고시합격을 못한 가정, 생남발원, 건강 부귀 장수는 물론 모든 소원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인 것이다.

특별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에 빙의된 빙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도법으로 얼굴에 광대뼈, 코뼈, 턱뼈, 들창코 및 몸에 균형이 자기띠와 사주팔자가 맞아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여야 부자로 사는법.. 연예계, 예술계,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지망생

心 견성과 도통을 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사대부집안 구대선망 오대조상 해탈만이 도통을 하는 것이고 혈단법인 예단경으로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원없는 광명천으로 천도되는 것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정해년 천안통 법회에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대법회

◆본종단 불사금 부적으로 소장했던 탄허대선사 큰스님친필 평풍, 일붕 서경보 큰스님 반야심경 평풍 친필과 강석주 대선사 큰스님 현판 및 오유지족 친필, 수덕사 방장 원담 큰스님 반야심경 친필 평풍을 소장하여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큰 행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바람

● 입제 : 양력 2007년 3월 26일(음, 2월 8일 월)(해시)
● 해제 : 양력 2007년 3월 27일(음, 2월 9일 화)(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 이용)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총본산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종지종풍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자 모집 함)

종 정 : 각암 대종사 부 종 정 : 혜산
원로의장 : 청산 중앙종회의장 : 정관
총무원장 : 능인 총무부원장 : 법진
사정원장 : 운암 포교원장 : 향운
교육원장 : 정도 무술연수원장 : 무성
감찰부장 : 무심 총무부장 : 정타
재무부장 : 진여 교육부장 : 명등
사회부장 : 도안 문화부장 : 혜명
호법부장 : 도천 규정부장 : 혜운
사서실장 : 자은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010-6393-4752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 돌체 라마와
티벳스님 8명

1.티벳스님 조상 합동 천도재 뿌쟈
2.국제 보살계 (판챠실라) 뿌쟈
3.마정수기 소원성취 뿌쟈

위 내용 법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문 의: (054) 535-1669
011-229-1068 / 016-9281-1666
▶후 원: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

“심는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효산 스님 (효산선원 선원장)



선지식을 찾아서 효산

봄이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봄꽃이 망울을 터트린다. 봄이 되면 절로 피어나는 듯 보이는 꽃도 겨우내 봄을 맞을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절인연을 기다려 꽃을 피우는 봄꽃처럼 우리 마음의 봄맞이도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리라. 산하에 봄은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봄을 찾아 온 천지를 헤맨다. 내 안의 보배를 등지고 바깥으로 돌고 돌며 헤매일 때, 우리 마음의 봄소식을 전해줄 스승을 만나는 일은 봄비보다 반갑다.

여념집 담장 너머로 봄매화가 꽃눈을 틔우던 2월 말, 효산 스님을 만나 뵈었다. 세 번이나 종정을 역임한 고암 스님의 제자인 효산 스님은 평생의 선방 수행을 회향하며 부산 연지동의 한신아파트 502호를 선원으로 꾸며 효산선원을 열고 참선을 지도중이다. 스님은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끝에 얻은 깨달음의 세계를 정리해 ‘효산선원 수행지침서’를 펴내 법보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열 세살에 절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경전의 내용과 스님들이 하는 것이 달라서 이상스러웠어요. 그래서 불법도 두루 둘러보고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 각 종교를 두루 연구했는데 성에 차질 않아요. 이래서야 어찌 종교인이라고 하고 스승이라 하겠나 싶어서 다시 부처님 법을 되짚어 갔지. 과연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뭘 가르치셨고, 뭘 지도하셨나 하고 살펴보다가 부처님께서 열반 하시며 ‘나는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바 없다’며 팔만장경을 부정하고 다시 삼처전심(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사라쌍수곽시쌍부(沙羅雙樹槨示雙趺)의 도리를 설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우리는 어떤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이니 부처님께서 설한 삼처전심의 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삼처전심의 도리를 해결해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알 수 있음을 간파한 스님은 17세 이후 줄곧 선방 수행만을 고집했다. 참선을 하면서 숱한 경계와 부딪힐 때마다 선문(禪文)을 찾아보며 길을 찾았던 스님은 자세한 지침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효산선원 수행지침서’가 탄생된 배경이다. 또한 물러서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 정진한 끝에 40대 후반 무릎을 치며 일어나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갖추는 경지를 얻었다. ‘이거 하나 우리한테 일어주시려고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삼처전심 도리를 가르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메모했던 한 장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효산수행 지침서’와 4개의 테이프로 정리돼 대중의 공부를 돕는 지침서로 탄생했다.

“불교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우주, 허공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려야 할 특권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생각을 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냈다하면 눈 깜짝 할 사이에 100%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와 허공계 안에서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은 누가 뺏어 갈수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원래 가지고 있어요. 사용법을 몰라 사용을 못할 뿐이지 찾아서 쓰고 안 쓰고는 자기 재주입니다. 세 번 째는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행이 된 분을 인도에서는 부처님, 중국에서는 도인, 한국말로는 내 마음을 찾아내서 그 힘을 거리낌 없이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스님은 이어 삼처전심의 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아서 쓰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의심을 몰아가는 간화선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임을 강조했다. 스님 역시 그 의심 하나로 평생을 선방에서 수행정진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힘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과 지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한다. 효산선원을 열고 ‘수행지침서’를 펴낸 것은 평생을 바쳐 거둔 수행의 열매로 대중들을 먹여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는 자비심의 발로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펴낸 ‘효산선원 수행지침서’에는 몸의 기본 원리, 마음의 기본원리, 말의 기본원리, 집중해서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과 공부를 하는 중에 겪게 되는 경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허공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 누려야
‘삼처전심 도리’ 알고나면 고통 벗고 남 도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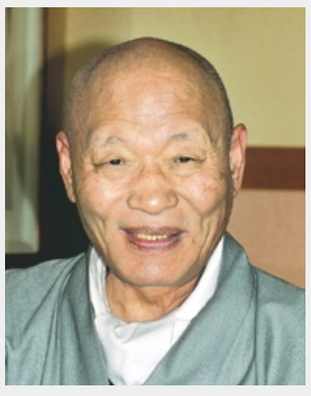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후학들에게 지침이 되고 싶었지. 그리고 평생을 선방에서 어려움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부대중의 은혜를 갚은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어? 은혜를 백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해 참선을 지도하고 있어. 효산선원에서 삼처전심 도리를 해결하는 공부인이 나오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세세하게 점검을 해주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삼처전심의 도리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삼처전심의 도리를 해결하면 첫째, 경제, 명예, 몸과 마음의 병, 수명 등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몸과 마음을 알고 찾아내서 내 마음의 힘을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되는 것이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것입니다. 요즘 불자들은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람이 사람의 세 가지 특권을 해낼 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특권도 모르면서는 동물의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말의 기본도 모르고 몸과 마음의 기본도 모르고 평생을 구걸하면서 산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스님은 이어 사람이 생각을 내는 것은 종자와 같다고 강조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종자가 되는 한 생각을 잘 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특히 근기에 따라 수행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근기란 하루 노력했느냐, 이틀 노력했느냐의 차이일 뿐, 간화선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마음의 힘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길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타 수행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육신통을 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간화선이 바로 삼처전심이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쓰는 방법이 간화선이므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찾아서 쓰려는 생각이 똘똘 뭉쳐서 찾아내려는 생각을 딱 몰아부치는 것이 참다운 의심이예요. 근기를 말하지만, 생명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쉬울 수는 없어요. 음식 하나 만들어 먹는 것도 여러 번 해봐야 하는데 우주 허공계를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그만한 노력 안 기울이고 될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는 이가 너무 없어 안타깝다는 효산 스님. 사방팔방 손을 짚으려고 해도 짚을 데가 없다는 말씀으로 귀 막고 눈 감은 채 물질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는 현실을 통탄했다. 그러나 스님은 오늘도 삼처전심의 도리를 일러주며 우주 허공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누구나 갖추고 있음을 일러주고 계신다.

글 · 사진= 천미희(객원기자)



효산 스님은 1934년 전남 순창에서 출생한 스님은 13세 동진출가했다. 고암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득도 한 후,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유교 등 여러 종교를 연구한 끝에 간화선법이 최상의 법임을 깨닫고 17세부터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등 제방선원 수행만을 고집해왔다. 5년전 효산선원을 열었으며 선원의 청소는 물론 수행 점검 및 지도까지 직접 하고 계신다. 효산선원은 새벽 3~5시, 오전 8~10시, 오후 2~4시 정진이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밤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6)

묻되, 외상 설법은 안하십니까?
답하되, 곡차나 주면 그 핑계로 횡설수설…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머물던 어느 날, 시자가 스님에게 여쭈었다.

"스님은 누구든지 곡차에 안주를 가지고 와야 설법을 하시고, 그냥 와서 물으면 소나 닭 보듯이 아무 말씀도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스님께서는 선불이라야 설법을 하시고 외상설법을 아니 하시는 것입니까?"

"에이,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자리는 본래구족(本來具足)하여 사람사람이 다 구족하게 갖고 있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곡차나 주면 이것을 핑계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냐." (경허집)

경허 스님은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수행자들이 불법의 도리를 물으면 종일 말없이 앉아 있곤 했다. 대신 누구든지 곡차를 올리며 법문을 청하면 곡차를 마시고는 하루 종일이라도 법문을 했다고 한다. 이런 광경을 자주 지켜보던 시자가 '스님께서는 만인 앞에 평등하셔야 할 도인이신데, 어찌 (곡차를 대접하는 여부에 따라) 그렇게 편벽하십니까?' 하는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시에 아직 안목을 갖추지 못한 만공 스님이 곡차를 대접하지 않은 수행자들이 불법의 도리를 물었을 때 경허 스님이 침묵한 것을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은 물론 잘못된 견해이다. 경허 스님이 묵묵부답한 것은 마치 유마 거사가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양구(良久), 즉 '잠자코 말하지 않은(默然無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를 한 번의 묵언이 우뢰와 같은 법문이라 해서 '일묵여뢰(一默如雷)'라고 한다.

<유마경> '불이법문품'에 보면, 여러 보살들이 저마다 불이법문에 드는 견해를 말하고 나서,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냐?" 고 묻는다. 이에 문수보살은 "내 뜻으로는 모든 법(진리)이 말할 것도 없고(無言), 이를 것도 없으며(無說), 보일 것도 없고(無示), 알릴 것도 없어서(無識), 모든 질문과 대답을 초월한 것(離諸問答)이 바로 둘 아닌 법문에 듦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어 문수보살은 유마 거사에게 묻기를 "무엇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니, 유마 거사가 이때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수보살이 찬탄하며 "좋고도 좋습니다(善哉善哉). 글자도 언어도 없음이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둘 아닌 법문에 듦입니다" 라고 찬탄한다.

"한 법도 설한바가 없다면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

위 선문답에서 경허 스님의 양구를 이해한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을 것이다. 양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곡차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허 스님은 안주 삼아 마지못해 불법을 논할 뿐인 것이다.

불법은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한 법도 설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일체 법을 설해야만 불법이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8만4000 법문을 설하시고도 한 글자도 설한 바 없다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인들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면 경을 비방한 것이요, 한 법이라도 설한 바가 있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다"고 했다.

입을 열면 불 · 조사의 뜻에 어긋나고 입을 닫으면 불법을 전할 방도가 없으니, 과연 어찌 해야 할까. 누가 불법을 물으면 경전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경전을 자유자재로 굴리며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삼계가 마음이고 만법은 인식일 뿐"

송찬우 교수, 경전연구소 동현학림서 '유식특강'…입문서 '백법명문론' 교재

3월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국1호빌딩 407호에 자리잡은 경전연구소 동현학림(東玄學林). 장명수(54) 스포츠한국 편집위원이 죽비 세 번을 치면서 시작된 송찬우(56) 중앙승가대 교수의 유식(唯識) 특강 첫 시간. 유식 입문서인 <백법명문론(百法明門論)>을 교재로 경전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함께 하는 이번 강의는 <백법명문론>의 서론격인 '백법논의(百法論義)' 첫 구절에서 감산덕청(1546-1623) 선사가 유식의 핵심을 드러낸 법문으로 문을 열었다.



동현학림의 유식특강에 참가한 20여명이 진지하게 '백범명문론' 강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송찬우 교수.

"부처님이 대장경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단지 '삼계가 오직 마음(三界唯心)'일 뿐이며, '만법이 오직 인식(萬法唯識)'일 뿐임을 설파하신 것이다."

불교의 종지를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으로 설파한 감산 대사의 이 한 마디로 첫 강의는 이미 종강을 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 어렵다는 유식은 물론이요 참선을 비롯한 모든 수행법의 시작과 끝이 오직 이 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 등지에서 올라 온 다섯 명의 스님을 비롯한 20여 수강생들은 감산 대사의 명쾌한 법문과 송 교수의 안목으로 다시 드러난 강의에 환희심을 내며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며 일심(一心)의 도리를 참구했다. 선어록을 중심으로 한 경전 강의의 권위자인 송 교수의 강의는 한자 원문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숨은 뜻을 드러내어, 매순간 공부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고 있었다.

"지금 생멸(生滅)하는 감정을 잊고 성인과 범부를 세우지 않으며 일심의 근원을 극진하게 안다면 상대적인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현상(相)에 나아가지만 본성을 회복(卽相歸性)'하는 최고의 법칙이다."

감산 대사는 본체 또는 본성인 성(性)과 현상 또는 형상인 상(相)이라는 대립적 존재를 하나의 근원(일심)으로 회통하고 있는 것이다. 송 교수는 "감산 대사가 유심(唯心)에 의거해서 본성의 공(空)을 주장하는 성종(性宗)과 유식(唯識)에 의거해서 현상세계의 여실한 모습을 주장하는 상종(相宗)의 분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명대의 대표적인 선사인 감산 대사가 유식을 해설한 것은 유심사상이 단지 교학의 틀에 갇혀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맹목적 수행만을 강조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산 대사는 <백법논의>에서 교(敎)와 선(禪)을 회통해 깨달음의 길에 이르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꽃을 들어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敎外別傳)' 뜻으로 삼으니 곧바로 일심을 가리켜 본래는 미혹과 깨달음이 있지도 않았고, 성인과 범부에 귀속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 달마 대사가 전수한 선종이 이것이다. 그것은 가르침 가운데서 수행하고 일심에 의지해서 그 깨달아 들어간 경지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생멸문(生滅門)에 의지해 깨달아 진여문(眞如門)에 이르기까지를 궁극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다."

유식에 대한 감산 대사의 깨달음 역시, 선과 교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수행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분별하면 인식(識)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지혜이며, 식(識)은 더러움에 의지하고 지혜는 깨끗함에 의지하며, 더러우면 생사가 있고 깨끗하면 모든 부처도 없어진다. 나는 이로부터 유식의 종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유식에서는 '하나이면서 참다운 진리의 세계(一眞法界)'에서 원만하고 밝은 '오묘한 마음(妙心)'은 본래 한 물건도 없기에, 몸과 마음과 세계의 형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기관(根)과 대상(境)이 상대해서 있겠으며, 망상과 분별이라는 인연의 그림자가 있겠는가? 원래 이 마음과 대상은 모두 '밝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無明不覺)'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에 미혹해서 식(識)이 있게 된 것으로 본다. 유식(唯識)이 변화해서 견분(見分: 주관의 인식 기능)과 상분(相分: 주관의 대상)의 두 종류를 일으킴으로써 견분은 마음이 되고, 상분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연과 대상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추한 것을 '취하거나 버림(取捨)'하는 것이 모두 허망한 인식(妄識)일 뿐이다.

결국 마음과 대상이 '오직 인식(唯識)'임을 안다면 분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분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원만하고 밝아져서 모든 형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유식의 수행관이다.

송 교수는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의 도리를 일깨우기 위해 그 무수한 교리와 수행 방편이 등장하고, 그 많은 이름과 모양으로 인해 오히려 일심을 증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 어떤 교학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본성과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會相歸性, 會歸一心)"고 첫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매주 월 오후 7시에 '유식 특강'을 진행중인 동현학림은 매주 토 오후 4시 명대(明代) 내지덕(來知德) 선생이 저술한 <주역집주(周易集註)>를 교재로 '주역 강좌'도 열고 있다. 동현학림에서는 송 교수의 강의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벽암록> <능가경> <장자해(莊子解)> <능엄경> <대승기신론> <화엄경십지품> <법화경> <천태소지관> <조론> 등의 강의 테이프를 제공한다. (02)732-303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깨달음의 장' 수련
문경 정토수련원은 3월 28일~4월 1일, 4월 4~4일, 4월 18~22일 각각 '깨달음의 장' 수련을 갖는다. 수련은 간화선, 염불, 위빠사나 등 수행법을 초월해 늘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삶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어있는 수행이 가능토록 한다. (054)571-6031

종일반 심념처 수행자 모집
한국위빠사나선원은 서울 청호불교문화원 1층 선방에서 느낌(受)과 마음을 알아차리(觀)는 수념처(受念處),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위주로 한 종일반 수행자를 상시 모집한다. (02)512-5255

참선교육 73기 개강
수선회는 3월 13일~4월 10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4층 선방에서 제73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참선의 자세와 종류, 선종 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 참구법 등. (02)732-5960

정토사 염불정진법회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는 3월 17일 오후 8~11시 염불정진법회를 개최한다. 칭명(稱名)염불, 관상(觀像)염불, 관념(觀念)염불, 실상(實相)염불 등을 회주 보광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031)723-9797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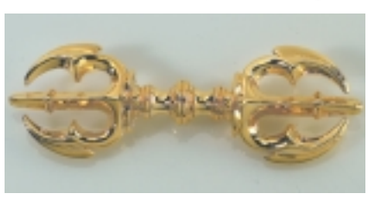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 '나만 힘들다'는 생각부터 버리기

내 문제에 집착하면

"'내힘들다'를 반대로 읽어보세요. '다들힘내'가 됩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하시면서요. 그 기발한 발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보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문제는 커보이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위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최근 부쩍 높아져 사망원인 중 4위가 되었습니다. 다른 난치병과 교통사고를 앞지르고 있는 세계적인 기(奇)현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못할 문제는 없다

"선생님, 저 사실은 지금 사는 것 다 정리하러 가는 길인데…."

실제 필자가 몇 년 전 어느 청년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들은 말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첫 눈에도 벌써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그냥 아무데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디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야지요"하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순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 가는 길이었지만 무조건 취소해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고민을 이야기하게 해보려 했지만 "제 문제는 절대, 절대로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제 문제만은 이해못해요. 그러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아시면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아무리 괜찮으니 편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그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못할 문제라고요? 제가 오래동안 사형수들을 만나고 있는 것 모르셨군요. 또 강력범, 무기수들과 마음을 터놓다 보니, 피눈물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고 세상에 그들보다 더한 사연은 아직 못보았는데요. 법우님이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전 더 이상 놀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세요…?" 하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재소자 법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불법에 귀의한 후 그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며 어떻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살행을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날 우리는 다섯 시간 이상을 이야기하며 함께 절에 가게 되었고 그 청년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봄 만들기

'사계절 없는 내 마음의 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봄이 와야 진정한 봄이 온 것입니다. 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은 여전히 얼어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불하기 전까지 겪는 고(苦)의 종류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꼭 물질이나 운력만이 보시는 아닙니다. 경제사정은 물론 가족, 건강, 직장, 인간관계 등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혹시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잘 되라는 마음 한번 지극하게 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자비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훈훈한 마음의 향기와 따뜻한 말의 힘으로 그 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봄이 활짝 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주세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자신의 고민…누구나 겪는 일

이웃 위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면 '행복'

신행게시판

인천 영산정사 강좌 개설
인천 영산정사가 불교입문반, 천수경반, 불교장례문화반, 국악가요반 등의 강좌를 개설해 3월 15일 개강한다. 오전 11시에 첫 강의를 시작하는 영산정사의 강좌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32)872-5071

백양사 기초교리강좌 개설
장성 백양사가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반 1기생을 모집한다. 3월 16일~7월 20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초교리반 강의에서는 불교기초교리를 비롯해 초발심자를 위한 불교예절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100명 선착순 모집. (061)392-7502

부산 혜원정사 <금강경> 강의
부산 혜원정사가 매주 화요일 <금강경> 강좌를 진행한다. 3월~7월 31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혜원정사 교무 진명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수강료 5만원. (051)866-7771

제20기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3월 27일~5월 18일 매주 화 · 금요일 제20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최한다. 서울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귀농학교에서는 도법 스님이 귀농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실습 등을 병행해 귀농을 돕는다. (02)576-1886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개강
어린이 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제2기 강좌를 개강한다.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1년 동안 매주 수 · 목요일 강의가 진행된다. 스님 어린이법회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02)739-4967

부처님 감사합니다

성지순례의 꿈

김경희 서울 도선사 신도

저에게는 오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여 제 곁을 떠나고 직장을 퇴직한 후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산재된 명찰을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그렇지만 직장과 소홀히 할 수 없는 엄마역할까지 바쁜 생활에 젖어 살다보니 생각만 간절할 뿐 실천하기란 여간 힘든 꿈이 아닐 수 없었지요.

오랜 나의 염원에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심인지 도선사에서 108산사순례의 대장정을 떠난다고 하신 겁니다. 이 순례불사 소식을 듣고 저처럼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불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 같아 설레고 뜨거운 감동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꿈을 이루어가는 두 번 째 사찰 통도사를 순례하는 날입니다. 입재식 하는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108산사 순례기도법회를 무사히 모두 마치고 회향하는 날까지 삼재팔난 만나지 않고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지역 차량은 망우역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했습니다.다른 때 같으면 새벽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소풍전날 아이의 심정이 되어 잠을 설쳐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열고 서서히 어둠을 밝히는 여명 속으로 고속도로위의 자욱한 안개가 순례단을 반겨줍니다. 그 모습이 미명 속에 살아가는 중생의 삶 같기도 하고, 안수정 등을 잊게 하는 무릉도원처럼 고요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순례 후 귀향길에는 이 안개가 모두 걷혀 있겠지요.

고운 옷 갈아입고 가을을 알려주는 산자락과 맑고 푸른 하늘이 맞닿은 곳에 솜구름이 몽실거리고 부드러운 아침햇살이 순례차량 60대 장정의 길에 부처님의 자비처럼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차량 속에는 봄볕에 꼬박꼬박 조는 병아리마냥 노보살님들이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있고, 젊은 보살님들은 차창 밖을 묵묵히 쳐다보며 마음속의 염원을 읊조리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들려주는 스님의 독경과 목탁소리가 청정하게 가슴을 파고 듭니다. 오늘은 음력 8월 26일 우연의 일치인지 제 딸 수련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생일상은 차려주지 못하고 왔지만, 그 대신 부처님께서 우담바라 한 아름을 딸에게 내려주셨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존경 받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자식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수천안의 자비와 지혜의 가피를 주시옵소서."

순례차량이 평사휴게소를 지나 통도사에 가까워오니 차안이 잠과 침묵에서 깨어난 보살님들의 말소리로 웅성거립니다.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고 즐거워하는 참새들의 합창 같습니다. 나는 허수아비가 되어 듣고 웃음 지었습니다. 중생의 각박한 삶 속에서 자주 느낄 수 없는 <반야심경>의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그림: 문병성

'108사찰 순례단' 동참 통도사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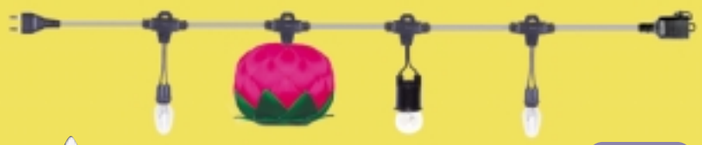
삶의 방향 읽지 않길 지극히 염원

순례차량이 60대라는 말을 듣고 그 대단한 불심에 너무 놀랐는데 그 많은 차량에서 내린 순례단의 행렬은 입에서 함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녹야원의 불제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넓은 장삼을 펄럭이시며 그 많은 순례단을 일일이 챙기시는 주지 스님의 모습이 녹야원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처럼 성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구도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경건함을 느끼며 스님의 인솔하에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하니 그곳에 주석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여러 스님과 신도들이 먼 길을 달려온 순례단을 너무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불법은 이렇듯 너와 나 분별을 만들지 않고 하나로 이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불법처럼 국법이 이루어질 때 국태민안의 태평성대가 될 수 있다는 도선사의 호국도량심이 상기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5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대설법전에서 통도사 주지스님의 환영설법과 108참회기도를 마치고 낙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도들이 많은 까닭에 낙관은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 사찰 곳곳을 다니며 참배했습니다. 열반하신 대덕고승의 가르침이 곳곳에 향기처럼 배어있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국보까지 볼 수 있는 108산사순례의 불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가피를 입은 듯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가 봉안된 금강계단을 올라서면서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있는데 경내 낙관식 행렬이 갑자기 박수와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하늘을 보니 흐렸던 하늘사이로 나타난 태양이 방광을 하고 있었습니다.(끝)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벚꽃이 아름다운 절, 가족과 함께 하는 절
합천 청강사 벚꽃 산사 음악회

합천 허굴산 자락의 청정도량 청강사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즈음에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의 선율과 함께 벚꽃의 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청강사 주지 혜 광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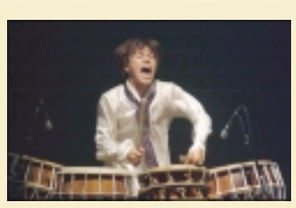
◆일 시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 청강사 경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산 67 ☎ 055)932-5706)
◆후 원 : 대병면 유관기관 및 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합천댐 관리단 · KT합천지점
◆출연진 : • 피 아 노 연주 – 권상무 교수 • 대금 – 이승준
• 메조소프라노 – 금정미 • 가수 안치환
• 신명퍼포먼스 – 타오

※ 저녁산사는 기온이 낮습니다. 따뜻한 복장 준비 하세요!


권상무 교수

이승준

금정미

안치환

타오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산과 하나돼 깨달음 나무 쑥쑥 키워야죠

실상사 '작은학교' 입학식 현장



부모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확대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 · 선배들 노래로 신입생들 환영
'김치찌개 잘 끓이는 민성이' 소개도 독특
부모와 아이들 생활관 텃밭 함께 일궈

3월 3일,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이 소란스럽다. 흙이 풀썩거리고 봄은 어느새 기지개를 켰다. 조용한 농촌마을 산내에 생동의 기운이 가득하다.

다가온 봄 때문만은 아니다.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소란, 부모의 설렘이 봄기운과 보태졌다.

"입학하는 학생 여러분 대중큰방에 다 모였죠?"

경내를 울리는 마이크 소리에 따라 대중큰방에는 약 1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리 잡았다. 입학식인데 의자도 없이 방바닥에서 양반다리다.

흔히 입학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운동장 정렬, 교장선생님 훈시, 신입생 대표 인사 등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절차가 하나도 없는 입학식은 어떨까. 단 한명 '우등생'이 돋보이는 입학식이 아니라 입학생 모두 마이크를 잡고 포부를 이야기하고 학부모도 함께 각오를 밝히는 자리. 이것이 '작은학교'의 조금 특별한 입학식이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올해로 일곱번째 신입생을 맞았다. 올해는 모두 16명이다. 대표교사 이경재 선생님이 아직 긴장한 친구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려 한마디 던진다.

"식구가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식구 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힘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입학했는지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깨달음의 나무, 쑥쑥 키우시고요."

절에 와서 스님들 말씀 안 들어보면 또 섭섭하다. 주지 재연 스님이 먼저 운을 뗀다.

"여기서는 '나'와 다른 '존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스님들도 여러분 덕분에 늘 젊어지고 많이 배웁니다. 함께 잘 지내봅시다!"

이사장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도 "지리산의 좋은 정기를 받아 좋은 그릇 되길 바라고 모두 '큰' 학교로 만들어 가자"며 격려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성은 법인 스님(화엄학림 학감)에게 돌아간다.

"신입생들 소문 들었어요. 우리 강원 스님들과 축구시합 한 번 합시다!"

이어지는 신입생 소개. 그저 김△△, 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특징에 맞게 '산내 짱 아데바요르 동민이', '김치찌개 잘 끓이는 민성이', '지리산 허스키보이스 창목이' 등으로 소개된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할 때도 아직 낯설어 엄마 뒤에 숨는 친구도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 친구도 있다. 인사도 '초 간단' "잘 살게요!" 일색이다. 아이들이야 저희끼리 앞으로 친해지면 그만이지만 떼놓고 갈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14년 동안 떨어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할 거라고 한 번 믿어보려고요. 학교도 선생님도 그리고 아이와 저도요."

산 너머 마을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기범이 어머니는 특히 마음이 좋지 않다. 초등학교 문을 나선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찌 걱정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알고 있다. 아이도 부모도 모두 씩씩하게 자립하고,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어지는 무대는 선생님들 차례다. 합창으로 준비한 '내가 찾는 아이'를 부른다.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불며 반주 넣었건만 뭔가 어설프다. 음도 가끔 안 맞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쿡쿡' 웃음소리다.

선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태양을 사랑하는 아이들아'를 들려주며 노래처럼 신입생 동생들이 자신들과 함께 커나갔으면 한다.

입학식 후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학교 주변 도보 30~40분 거리에 흩어져 있는 '언덕배기' '웃고가' '대청마루' 등으로 불리는 5개의 생활관이다.





각자의 생활관으로 가는 길. 같은 곳에 사는 아이들끼리 뭉쳐 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간다.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외치며 깔깔거리는 얼굴이 해맑다.

세 아이 중 두 명을 작은학교에 입학시킨 윤영미(43 · 경기도 분당)씨는 왜 작은학교를 택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여기서는 '지리산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말들을 해요. 학교와 학원의 굴레보다 산과 들에서 숨 쉬는 쪽이 아이들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른 대지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자연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깨닫고 '연기(緣起)'를 체득하는 교육은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장치인가.



하지만 작은학교가 지향하는 '대안교육'이란 것이 말처럼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작은학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열악한 시설도 문제고 비인가 교육이라 따로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작은학교는 '터전'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아이들. 어느새 그들 앞에 산수유 꽃이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도 저마다의 희망이 톡톡 터지고 있다. 남원/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위에서부터 신입생들의 입학기념 노래, 부모님과 함께 텃밭 일구기, 선생님들의 인사, 작은학교 전경.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노원구 노원역일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문화의 거리'가 펼쳐진다. 야외무대공연과 거리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휴보 로봇! 노원에 오다' 미디어아트 모바일 쇼, 비보이 및 락 공연, 라틴 · 살사, · 재즈 댄스, 고적대 퍼레이드 외 다수의 행사가 펼쳐진다. 3월 24일까지.(02)950-4398

경남 밀양 내일동에서는
3월 13~14일 만세운동이 전개된다. 영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1919년 3월 13일 밀양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시민들로 하여금 선열들의 빛나는 항일 저항정신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3 · 1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이 진행된다.(055)359-5114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 국악캠프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여름방학 중 사물놀이, 단소, 판소리, 민요 등 강습, 공연 관람 및 발표회 등을 진행, 총 10개 내외 단체에 2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통예술 공연단체며 기한은 3월 30일까지(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02)3704-9564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신소장품 2006전을 개최한다. 미술관이 심혈을 기울여 소장한 작품들을 일반 관객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 2006'전을 오는 2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제 1, 7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신소장품 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소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전시이다. 전시 설명회는 매주 토, 일 오후 2시와 4시에 있다.(02)2188-6000

전남 구례에서는
제9회 산수유 축제가 3월 15~18일 열린다. 길놀이, 마당극 등의 공연과 산수유꽃 활용 요리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도 함께 펼쳐진다.(061)782-201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후원을 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전문지도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신심과 정성이 한국불교에 밑거름이 되고, 불자님들의 거룩한 보시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룩하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이런일을 합니다.
-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년2회 여름 · 겨울)
- 대한불교교사대학 운영
-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군 불교 포교 및 사찰행사 지원
-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모임 운영
- 찾아가는 법당(법회 · 불교학교) 개설 및 운영
- 연등축제 연희단 율동 기획 및 보급 등
-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개최

만인동참에 참여 바랍니다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사찰이나 단체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 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 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계좌번호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지로번호 : 7670909

※ 본회에서 같이 활동하실 지도자를 모십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신도회관 405호
TEL : (02)738-7860 FAX : (02)738-7863 www.burec.org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제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불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사응시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알선(유급)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20%할인

- **모집대상** :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지도교사
- **교육기간** : 불기2551(2007)년 3월 ~ 불기2552(2008)년 2월 (1년 과정, 여름 · 겨울 방학)
- **개 강 일** : 3월 22일 (목) (입학식)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 · 목 오후 7시~9시)
- **모집기간** : 3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문의전화** : 본대학 교무처 (代)(02) 739-4967 www.burec.org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게시판 이용)

불기2551년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언 제? 불기2551(2007)년 4월 15일 일요일 **누 가?**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 모두
어떻게? 찬불가 한곡을 정하여 율동을 창작한 후 4월 7일까지 참가비 5만원과 함께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 묵

좌절한 사람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미숙아, 냉큼 약국에 다녀오너라" 할 때 '냉큼'과 "미숙아, 왜 이렇게 성큼 걷니?" 할 때 '성큼'은 발음은 비슷하나 뜻이 분명 다른 말이지요. '성큼'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곧'이란 뜻이며 '성큼'은 '발을 높이 들어 걷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말 가운데 값과 삯 이란 말이 있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경우를 보죠. 이 사람은 버스 탄 요금을 묻는 게 아니라 버스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되고 말아요.

'값'은 물건에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를 뜻하기 때문이죠. '값'은 "값이 비싸다" "값을 치른다"고 할 때처럼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돈을 의미하죠. 이밖에도 "애쓴 값도 없이 수포로 돌아갔다"와 같이 노력, 희생에 따른 보람이나 대가 등을 뜻하기도 하고요.

'삯'은 "왕복 삯만 100만원이 들었다" "삯을 받고 일하다"처럼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 또는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죠. 따라서 '버스 삯' '택시 삯'으로 혹은 버스비나 택시비로 쓸 수 있어요.

'-비'는 교통비, 생활비 등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비용의 뜻을 더하는 말이므로 '버스비' '택시비'라고 써도 문제는 없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오헨리作 '마지막 잎새'

오헨리는 세계 3대 단편 작가 중 한 사람인데 '마지막 잎새'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이 작품은 현실적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휴머니즘을 통한 예술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얼 말하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고 담쟁이 잎의 상징적 의미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겨울 뉴욕의 한 거리에서 존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반당하고 깊은 슬픔에 빠진다. 이러한 존시를 수전과 베어먼은 안타깝게 지켜 볼 뿐 달리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존시가 폐렴으로 심하게 앓게 되고, 의사는 존시의 병이 의학적인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존시가 몹시 앓을 즈음 베어먼은 가난 속에서도 예술적 혼을 기울여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다. 그러나 베어먼의 그림은 그 시대 감상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존시의 약값을 벌기 위해 3달러에 자신의 그림을 팔고 돌아온 베어먼은 심하게 갈등한다.

존시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가운데 창밖의 담쟁이 잎에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된다.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게 되는 날 자신도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떨어지는 잎새를 기운 없이 바라본다.

바람이 몹시 불던 다음 날, 존시가 담쟁이 잎을 확인하려 하자 수전은 잎이 모두 떨어졌으리라 생각하며 커튼 걷기를 주저한다. 계속되는 존시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커튼을 걷고, 곧이어 존시와 수전은 담쟁이에 잎 하나가 꼭 붙어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모진 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잎을 보고 존시는 삶의 의욕을 찾게 된다.

사랑 · 예술 · 삶의 진정한 가치 '담쟁이 잎'으로 상징한 명작 단편

이 때 눈길 모퉁이에 영구차가 도착해서 죽어 있는 화가 베어먼을 싣고 간다. 동네 사람들은 미치광이 화가가 술을 먹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전은 베어먼이 담쟁이의 잎을 밤새도록 그리고 죽은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만 그리던 화가였다고 비판하는 존시에게 베어먼이야말로 훌륭한 예술가였다고 말해 준다.

'마지막 잎새'는 존시의 사랑과 실연, 삶에 대한 의욕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와 함께 베어먼의 예술 작품 완성을 위한 욕망과 좌절, 그리고 명작 완성의 과정을 동시에 그리고 있지요. 존시가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외면당하는 현실 때문이며, 베어먼이 술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혼을 담아 그린 그림이 단 3달러에 팔리는 현실 때문이겠죠. 순수한 사랑과 예술 혼이 현실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할 때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품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감동을 줍니다. 상처 입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담쟁이 잎이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술이 아니라, 인간적 사랑에 있음을 보여 주죠. 베어먼이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이웃에게 등불을 빌려 혼신의 힘을 다해 담쟁이 잎을 그리는 행위는 존시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때 베어먼이 그린 담쟁이 잎은 자기희생 정신의 상징이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인간적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잎을 그리지는 않겠지요. 비로소 베어먼이 욕망하였던 예술 작품의 완성을 이룬 것이라 생각해요. 베어먼은 서툴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기 전에 훌륭한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술과 사랑,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주제를 펼쳐 보이며 진정한 사랑과 예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지요. 삭막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기시켜 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Q: 사춘기에는 왜 화가 자주 날까요?

(ID:중딩)

A: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는 지금 어른이 되는 길목에 서 있답니다. 신체적인 변화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할 거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지금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성장해나가면서 부모님보다는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많은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많은 갈등을 겪곤 한답니다. 우리 친구도 사춘기 문제를 강하고 냉철하게, 또, 주저하는 일 없이 무난히 극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엄마아빠와 장난을 쳐가면서 재미있게 놀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도 새롭고 낯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모험과 같은 일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꿈은 갖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 보면 우리 친구에게 꼭 필요한 지적을 사랑이란 잔소리로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친구에게 부모님과 즐겁게 맘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보기를 충고해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 되길 바랍니다.

(사이버 상담원)



산야초 향(香) 잎에 7년 숙성황토

달마도량 거창 달마사 **뽀얀 미백 돌려줘!!!**



지난 7년전 신문과 방송언론을 통해 황토달마가 처음으로 알려진 일이 있다. 그 귀한 재료가 반죽되어 산야초 향 재료 속에서 장장 7년 동안 숙성되었다. 얼마전 그 황토를 달마조각을 위해 꺼내던 날 황토가 얼굴과 손에 팩이 되어 뽀얗게 되어 서로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냥 황토팩이 아니다. 산야초 머금고 얼고 녹아 7년 숙성된 팩이다. 지금 달마사에서는 바빠진 이유가 있다. 검고 주름진 피부가 평생 햇빛 한번 안본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웃주민들이 찾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잔주름이 제거되어 놀라워 하며 뽀하얀 피부를 기다리는 분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청오스님은 맑고 밝은 얼굴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 또한 마음을 정비하는 수행이 될것이라고 했다.

크기(35X52cm)달마복등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야초 원료로 태우지 않는 향 보급으로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 7년 숙성 아미수 황토팩 특징

1.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자연팩 화장독을 제거하여 지금보다 더 노화되지 않고 사는 비결.
2. 청오스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 맷돌에 갈아 풍구에 날려 물에 앙금 제거 후 7년 동안 산야초에 숙성으로 금쪽같은 팩이다.
3. 한정품(대량생산이 아님) 미백과 잔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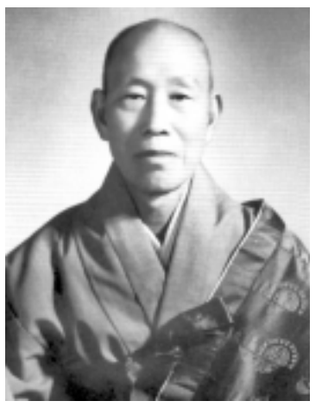
아미수팩 녹차1통 300g - 3만원
(2통 이상은 팩, 붓, 아미수물,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055)941-1083 010-4595-0017



덕유산 달마사
- 주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번지
- 매주 일요일마다 달마사에서는 무료황토팩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
- 계좌번호 : (농협) 841067-52-031220 김정환

70년전 육성… '책'으로 세상 나들이

前 내소사 조실 해안 스님의 '십현담 · 금강경' 강의 복원





십현담 · 금강경
해안 스님 강의
전등사 · 전등선림 비매품

"本來無住不名家(본래 머무는 곳 없어 집이라 이름하지 못하리)"

강의:불법은 안에 있지도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아서 일정한 처소가 없습니다. 일정한 처소가 없다면 무엇을 집이라 하겠습니까? 처소도 없고 집도 없으니 가는 곳마다 청풍명월이지요. 천지가 모두 내집이니 내집이 따로 없습니다. 청산녹수도 좋고 거리도 중이라도 좋지요.<십현담-파환향중에서>

"須菩提야 如來所得法은 此法이 無實無虛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바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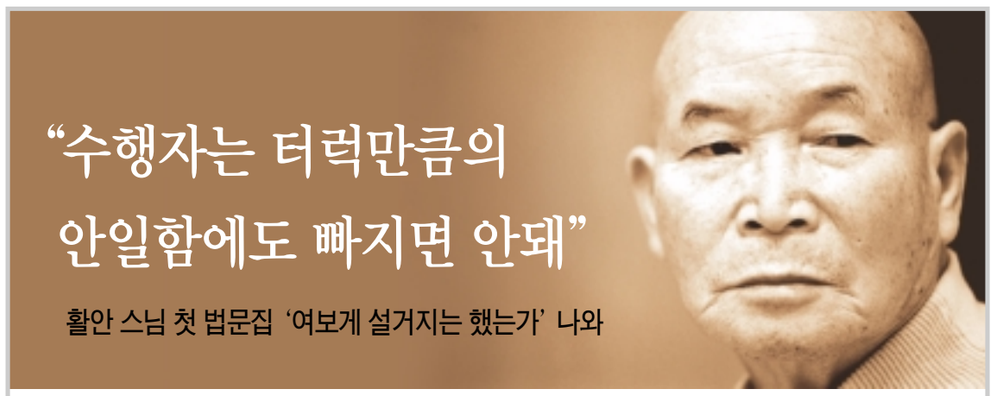
강의: 중생은 말만 떨어지면 병을 이루니 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實)을 말하면 실병(實病)이 되고, 허(虛)를 말하면 허병(虛病)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실과 허가 둘 다 없는 근본을 들어서 밝히셨습니다.
<금강경 제 14장-이상적멸분중에서>

<금강경>강의에 대해서만큼은 소문난 인기강사였던 前 내소사 조실 해안 스님(1901~1974 · 사진)의 <십현담>과 <금강경> 강의중 일부다. 17세에 전남 장성 백양사로 출가해 학명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해안 스님은 내소사에 주석하며 호남선풍을 진작시켰던 선교에 두루 조예가 깊은 선지식이었다. 특히 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내용이 쉽고 재미있어 십리길을 머다않고 찾아오는 학인들이 꽤 많을 정도로 인기였다. 다행이도 이 강의 내용은 1930년대 낡은 일제녹음기에 담겨졌고, 해안 스님 입적 후 제자인 동명 스님(서울 전등사 주지)은 수십개의 테이프를 풀어 2001년 3권 1질의 <해안집>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그 <해안집> 가운데 <십현담>과 <금강경>에 대한 강의 내용만 선별해 모아 엮은 것이다. 해안 스님의 강의 내용이 쉽고 자세해 몇십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읽어봐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 정도다.

<금강경>이야 널리 알려졌지만 <십현담>은 좀 생소할지 모른다. <십현담>은 중국 당말때의 선사인 동안상찰(同安常察:872~962) 스님이 지은 선법문인데, 문장은 평이해보이지만 담긴 뜻이 심오해 초학자들이 그 깊은 취지를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께서는 <십현담>을 천번 만번 읽다보면 전에는 못보던 나의 참 얼굴을 보고 속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때가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tu서 <금강경>과 함께 단행본으로 묶게 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해안 스님의 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어법에 맞게 고쳐 읽기만 해도 강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에도 빠지면 안돼"

활안 스님 첫 법문집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나와

통현일갈만기복 (通玄一喝萬機伏)
언전대기전법륜 (言前大機傳法輪)
법계장월일장명 (法界長月一掌明)
만고광명장불멸 (萬古光明長不滅)

조계산 천자암 법당의 주련에 새겨진 구절. 30년 넘게 천자암에서 수행하며 운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활안(活眼) 스님의 오도송이다. 새벽 2시 도량석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활안 스님의 일과는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지론 그 자체다. 예불과 영가천도기도 국태민원발원 등으로 새벽을 밝히는 스님은 참선과 일 그리고 찾아 오는 운수들의 지도로 촘촘한 하루를 보낸다.

멀리 법문을 하러 다니지도 않고 이런저런 행사에 나가지도 않는다. 팔순을 넘은 노령이지만 젊은이들보다 건강하게 시간을 부리고 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 왔으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탓도 있지만 탐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 가는대로 참선 하는 것이 지금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자신의 마음자리를 결정하고 노력하면 생산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추상같은 수행으로 자신을 벼루고 또 벼루는 삶을 강조하는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의 법문집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조계종 원로위원인 활안 스님의 법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활안 스님은 길지 않은 법문들을 통해 깨달으면 부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중생을 향해 스스로의 성품을 바로보고 바로 닦으라는 뜻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하라고 간절하게 당부한다. 법문과 신문 잡지에 소개된 글 그리고 수행의 궤적들로 묶여진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천자암에 가본적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천자암에 서너 번 다녀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설거지'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12년간 현대불교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수행전문 작가로 변신한 김성우(본명 김재경)씨가 스님의 법문들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아 묶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활안 스님 지음
김성우 엮음
휴먼앤 북스
1만3500원

대만 자제공덕회 증엄 스님의 '자비체험'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중생의 육체를 공양(供養)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지혜로써 충실히 만들고 자비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타이완 불교계를 대표하는 비구니 쩡이앤(證嚴) 자제공덕회 회주 스님의 말이다. 이 책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칭송받고 있는 쩡이앤 스님의 법문집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큰 서원을 세운 쩡이앤 스님은 1966년부터 타이완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조직해 난민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쩡이앤 스님의 이런 자비체험들에서 나온 주옥같은 감로법문들이 수록된 이 책은 전 세계에서 6개 국어로 출간돼 100만부 이상 팔린 스터디셀러이기도 하다. 이 책을 현대불교신문사 대만통신원인 이상미씨가 간결한 문체로 번역해 놓아 책 제목처럼 아침명상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김주일 기자



아침명상록
쩡이앤 지음
이상미 옮김
하늘북 | 1만5000원

'꼬장꼬장' 한 옛 선비들의 삶

담백한 글 솜씨로 옛 글과 옛 사람의 삶을 구수하게 풀어낸 <선비답게 산다는 것>.

이 책은 자신을 '호고벽(好古癖)'에 빠진 사람이라 자칭하는 저자가 옛 글을 읽다가 발견한 선비 특유의 모습과 흥미로운 사유의 자취를 간추려 엮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비들의 생활을 보면 그동안 우리들이 짐작했던 선비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으며, 그 이유는 수 백년 전 그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르지만 감성만은 온전히 남아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유만주, 절식을 실천한 성호 이익의 글, 골동품 수집에 몰두한 김광수, 만권 장서가 이하곤 등을 소개한 글을 읽다보면 우리를 둘러싼 현재의 삶과 사물들이 옛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선비답게 산다는 것
안대회 지음
푸른역사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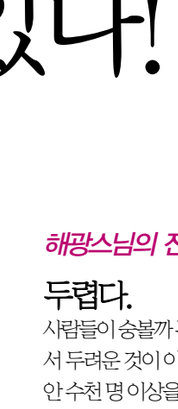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 이끄는 길잡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티베트 수행자 츠양 트룽빠의 대표적 저서인 <Meditation in Action>을 번역한 책이다.

서양 세계에 티베트 불교와 명상을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촉얌 트룽빠(1939~1976)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중 하나인 카규파의 법맥을 전수받았으며, 18세에 티베트를 떠나 영국, 미국에서 공부와 포교를 이어갔다.

트룽빠 스님은 마음평화를 이끄는 길잡이로써 다르마(법)의 체계적인 수행법을 정립하려 했다. 수행법의 기초코스에서부터 심화된 집단 안거 수련에 이르기까지 그의 프로그램들은 학습과 체험, 지성과 직관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명상이란 삶에서 도피하는 것도, 이상향에 도달하는 것도, 정신수양의 문제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라는 점을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행복한 명상
촉얌 트룽빠 지음
한은주 옮김
미디어숲 |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3	간화정로	월암	현대북스
4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효림
5	삶과 죽음, 바르도의 실체	혜국	정우서적
6	보살	최영순	운주사
7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8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불멸	화현	지혜의 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 · 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신간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볼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졌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질 않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 · 사고들……. 8·15광복, 6·25동란,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代) / Fax. 02-3142-4901
•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광스님〉 T. 032-665-8472

한국불교 다양한 콘텐츠 한자리

'한국불교박람회'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3월 22일~25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사전 설명회 모습.

한국불교문화의 유무형 컨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7 한국불교박람회장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110개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해 사찰음식, 불교문화용품, 불사건축자재 등 다양한 불교컨텐츠를 선보인다.

3월 22일 오후2시 개막 행사로 시작하는 박람회는 각 주제별로 300여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중에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태고종 진각종 관음

주요 종단·사찰 대거 참여
서각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종 등 주요 종단과 조계사 관문사 도선사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이 운영하는 홍보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불교문화컨텐츠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 보여준다. 특히 서각체험부스로 참가하는 혜안스님은 15m 길이의 대형염주를 보여줄 예정이며, 3~6m 규모의 불교 장엄등을 현대 감각으로 살린 에이비알의 작품들도 공개된다.

지난 대회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듯 신규 참가업체들이 늘어난 것도 이번 대회의 큰 특징이다. 성종사 찬덕연등 취운향당 등 교계 유수 업체와 대한명인회 (사)로터스월드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들도 신규 참여단체로 이미 명단을 올린 상태이다.

한국불교박람회 장혁 사무국장은 "박람회 준비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이미 신청마감을 해놓은 상태라 한국불교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물 관람 이외에도 큰 스님들의 법문과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마련해 놓아 충분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 중에는 △3월 24일 오전 11시 진각종 문화공연 △3월 24일 오후 1시30분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조실) 법문 △3월 24일 오후 4시30분 LMB싱어즈 음악공연 △3월 25일 오전 11시30분 세계선무도협회 서울지원 선무도 시연 △3월 25일 오후 1시30분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특별법문 △3월 25일 오후 4시 해동불교범음대학 범패 시연 등의 일정으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서각, 도예, 연등 만들기 직접 체험도 마련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황금돼지 10돈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의 유무형 자산과 문화역량이 총 집결될 이번 행사가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21세기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한국불교를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람회 기간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가능하다. www.bexpo.org.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7 한국불교박람회 눈길 끄는 참여업체

■ 성종사- 밀립주조공법 독자적 기술

성종사 전매특허인 밀랍주조공법은 업계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주철장인 원광식 대표가 10여년간 독자 연구 끝에 재현해 낸 우리 전통주조기법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이 주조기법은 완성된 범종 표면의 문양을 섬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우수한 최고의 범종제작기법이다.(02)733-6141

www.sungjongsa.co.kr

■ 양지 국악사- 전통 소리의 견고한 제품

양지국악사는 1991년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장고를 비롯해 대고, 소고, 대금, 태평소, 꽹가리, 징 등 20여가지가 있다. (02)3673-3442

www.yangjikukak.com

■ 불제대원기업- 연등용 전선 등 '우수'

1989년 신심있는 불자들로 구성돼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해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제품으로 오늘까지 꾸준한 제품개발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자기업체다. (02)2266-2634

www.bulje.co.kr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200개 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전문으로 의식하실 분)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갖추어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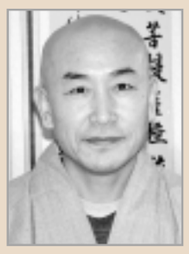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협착,만곡,측만)요통,좌골신경통,관절통,오십견,견비통,팔저림,목디스크,요실금,코골이,무호흡증,수족냉증,위장병,비만,불면증,당뇨,고혈압,갑상선,우울증,초조불안,두통,안짱다리,생리불순,생리통,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바로보인 전등록 바로보인 선문염송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신중참회 지장기도 도량
불가사의

- ◆ 낙태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 ◆ 병명없는 고통은 문제가 있습니다.
- ◆ 천도는 마음에 따라 기도성취가 다릅니다.
- ◆ 구병시식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 ◆ 참회기도는 모든 일이 가능케 합니다.

해원사 매월 기도일정
- 매월 둘째주 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철야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경전강좌 (법화경,유식학)
- 매월 초하루, 18일(지장기도) 법회
- 신중참회기도(360일), 100일 기도정진(다라니)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해원사 031)736-3734
네이버 홈페이지 : www.haewonsa.or.kr
야후, 다음 검색창에 해원사 치세요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치않는 분들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 련 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여 행자승 모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권력의 칼날아래 죽어서도 옆구리 시린 '운명'



제1대 태조의 비 신덕왕후-정릉

신덕왕후(? ~ 1396) 능호:정릉
부:곡산 강씨 윤성 모:진주 강씨
자:방번(무안대군), 방석(의안대군) 녀:경순공주

버들잎 한줌에 운명이 바뀐 여인,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을 250여 년 동안 감당해야했던 여인, 피지도 못한 10대의 아들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 죽어서도 이리저리 찢기고 밟힌 여인, 그녀가 신덕왕후 강씨다. 정릉에는 한이 많다.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다가 편한 무덤조차 갖지 못했다.

문상객 뜸한 초상집 풍경은 처연하다. 고인의 생전 이력, 자손들의 숫자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상가 풍경은 흥청거리기도하고 적막하기도하다. 외따로 떨어진 쓸쓸한 무덤 또한 처연하다. 죽어서조차 옆구리가 시리다. 신덕왕후의 정릉이 그렇다. 조선 왕릉 중 홀로 묻힌 단릉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왕릉군에 속해 있어 가까운 곳에 혼령들의 말동무가 있다. 생전에 서로 면식 없었지만, 관람객이 떠난 밤중에도 소곤거릴 수 있다. 쌍릉, 합장릉에 묻힌 이들을 향해 빈정거리기도 한다.


정릉 전경. 병풍석이 없다.


덕수궁에 보관되어 있는 흥천사 대종.

홀로 외따로 떨어진 무덤은 3기뿐이다. 정릉(신덕왕후), 장릉(6대 단종-강원도 영월), 사릉(단종비 정순왕후-경기도 남양주시). 외로운 고혼들이다.

태조가 젊은 시절 부하들을 거느리고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우물가에 물 긷는 처녀가 있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말에서 내렸다.

"낭자, 물 한바가지 주시오."

우락부락한 무장들이 우물가에 우르르 들이닥치자 처녀는 놀랐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 침착했다. 두레박으로 샘물을 길어 바가지에 부어 건네려다가 멈칫하더니 우물가에 있는 버들잎 한줌을 따서 물에 띄운다. 화가 난 이성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고약한 짓이오?"

수하 장졸들은 허리춤에 찬 칼을 들썩거린다. 고개 숙인 처녀는 냉정했다.

"갈증으로 급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급히 드시면 목이 막힐 것 같아 버들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십시오."

이성계는 그녀의 지혜와 미모에 감탄하여 한동안 넋을 잃었다. 이 처녀가 신덕왕후다. 가끔 들르는 고향 함흥에서 집을 지키고 있는, 촌년 냄새 물씬 풍기는 본처 한씨에 비할 바 아니다.

강씨는 판삼사사 강윤성의 딸이다. 그녀의 숙부 강윤충, 강윤휘 또한 고려의 고관들이다. 고려 말 권문세족이었던 강씨의 친정은 이성계의 권력형성, 조선 개국의 큰 힘이 된다. 이성계는 빵빵한 처가 덕을 톡톡히 본다.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한씨는 걱실걱실한 6남2녀를 낳고 조선 개국 전 죽었다(55세, 1391년).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8월 2일 강씨는 현비로 책봉된다. 조선최초의 공식 왕비다. 방번, 방석 두 아들과 딸 경순공주를 낳았다. 태조의 집권 거사에도 친정 세력들과 참여했다. 태조의 총애 또한 흔들림이 없다. 믿음직한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이 곁에 있다. 자신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대통을 이을 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섰다. 비극의 싹이 움튼다.

태조와 은밀히 협의하여 자신이 낳은 첫째 아들 방번을 세자로 내정했으나 정도전, 배극렴, 조준 등 원로들이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고 반대해서 동생인 방석(11세)을 세자로 삼는데 성공했다. 이 때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분통을 터뜨린 호랑이가 있었다. 혈기와 조직을 갖춘 펄펄한 27세 청년, 방원이다.

그러나 강씨는 친아들의 등극을 보지 못하고, 아들 딸에게 엄청난 화의 덩어리를 남기고 병사했다(1396년). 출생 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추측된다. 이때 예순 둘의 태조는 군왕의 품위마저 망각하고 대성통곡했다. 사찰을 찾을 때면 항상 동반하고 강비가 아프면 스님을 궁에 스님을 불러들여 기도를 드리게 했다.

태조는 궁에서 가까운 도성 안에 정릉을 조성했다. 그리고 원찰(願刹)로 능 동쪽에 170여 간의 흥천사를 세워 조계종의 본산으로 삼았다. 태조는 정릉의 아침 재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 흥천사는 연산군 때 화재로 소실되고 태조의 상심을 위무했던 흥천사 대종은 몇 차례 자리를 옮겨 지금은 덕수궁에 있다.

1,2차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장악한 방원의 보복은 무자비했다. 그 표적에 죽은 강씨가 있다.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버린 아버지, 그의 말은 방원에게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방원(3대 태종)이 즉위하자 정릉 파괴가 시작된다.

"정릉은 도성 안에 있고 능역이 광대하다. 능역 100보 밖까지 주택지로 허하노라."

태종과 코드가 맞는 하륜 등 세도가들은 얼씨구나! 다투어 정릉 숲을 베어내고 집을 지었다. 뒷방 늙은이 태조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태조가 죽자 (1408년, 태종 8년) 정릉의 운명도 곤두박질친다. 태조가 죽은 1년 후, 1409년.

"도성 안에 능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장하라. 강비는 선왕의 둘째 부인이다. 후궁으로 예우하라."

그래서 정릉은 현 위치(양주 사한리, 현재 성북구 정릉동)로 옮기고 능을 묘로 격하시킨다. 이장작업에 정성을 기울일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빚쟁이 이삿짐 싸듯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무례와 무성의가 난무했다. 병풍석은 허물어 궁궐 공터에 야적했다. 이듬해 청계천 광통교가 홍수로 유실되자 그 석물들을 일부 가져다 썼다. 현재 정릉에는 병풍석이 없다. 어진 임금으로 추앙되는 세종마저 핏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종 즉위년에 나라에서 지내던 정릉의 제사마저 폐했다. 족친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세종 8년에는 신덕왕후의 영정을 불살라버리라는 명을 내렸다. 세종도 신덕왕후를 정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대역 죄인의 무덤에 버금가는, 잊혀지고 뭉개지는 무덤으로 변해갔다.


창덕궁에 방치된 정릉 난간석.

정릉 조성하고 동쪽에 흥천사 세워 조계종 본산으로 삼아
태조 죽자 태종은 묘로 격하시키고 병풍석까지 허물어 방치
세종도 "영정 불살라버려라"…정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

1669년(18대 현종10년) 11월 1일, 떨어진 낙엽을 적시는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다. 겨울비답지 않게 주룩주룩 내린다. 정릉 일대가 흥건하다. 이날은 정릉의 정자각이 완공되고 종묘에서는 신덕왕후의 신위가 260여년 만에 태묘에 배향되었다. 명예회복, 복권의 날이다. 이날 내린 비를 세원지우(洗寃之雨)라고 지금까지 전해진다.

무자식 상팔자인가. 태조와 신덕왕후는 자식들에게 단단히 혼난 이들이다.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어찌 그런 패륜이 있었겠는가. 그들에겐 권력이란 크고, 무겁고, 달콤한,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있었다. 태조 등극 전에 죽은 첫째부인 한씨(신의왕후)는 둘째 아들(정종) 가까이에 편히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정릉은…

사적 제208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6 면적 299,574㎡(90,621평) 원래 정릉은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다. 태조가 고려 왕릉을 본떠 온갖 정성을 쏟아 조성한 조선 최초의 능이다. 현재 정릉은 이장, 복원된 것이다. 능에 오르면 병풍석 없는 봉분과 고석(받침돌)이 두 개뿐인 홍유석, 무인석은 없고 문인석만 있다. 흥천사의 운명도 정릉과 같다. 정동 자리에 있던 절은 연산군 때 불타버렸다. 22대 정조 때 성민 스님, 경신 스님이 현재 위치에 흥천사를 중창했다.

실력있는 실행 불교인 전문 육성교육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인가 제2006-2호)
경기북부 종무원
불교대학2007년 6기 학인모집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문화를 포용할 부처님 말씀위에 사상과 교리를 습득하기 위하여 초급에서 중급과정까지 맞춤 교습으로 스님과 일반인 등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실제 사찰현장 실용 불교의식을 전수 합니다.

교수진
• 불교의식 : 지도교수 인각 스님
전통있는 영산 보전회 지원아래 중요무형 문화재 50호 이수자로 구성된 실력과 덕망 있는 교수진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있는 지도전수
• 서 예 : 지도교수 도암 스님
각종 서예 대전에 입상 경력이 화려하신 교수초빙 능력별 개인지도 교습
• 특 강 : 초청법사 (각 분야별 최고의 권위자 초청교수)
불교학, 사찰경영, 생활역학 등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창건시 신도 관리와 상담등을 책임있게 다룰수 있는 운영방식 강의

과 정
• 기본과정(6개월)
• 중급과정(6개월)

과 목
• 불교의식학과
(사물 및 재공의식.범패,범음)
• 서예학과
• 특 강
(불교학, 사찰경영, 생활역학)

모집인원
• 각00명

원서접수
• 2007년 3월 29일
(이수 경험자는 수시접수)

개강일시
• 2007년 3월 29일 입학식 및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특 전
• 본 대학 이수자에 대하여는 경기북부 종무원 산하 각 사,암 의식에 우선 초빙하는 혜택을 드리며 상위학습 및 연구반에 추천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문 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4-4
TEL 031)953-2336 / FAX 031)953-2337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불교대학장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제 2기 동양철학강좌
무료(大) 공개 강좌
2007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 4시
육임(이춘목 교수), 현공풍수(박상건 교수)

※ 교육참가대상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으신분
●역학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신분
●정년, 명퇴, 직업을 전환하실 분
●직업에 응용하실 분
(부동산, 사주카페, 보험, 결혼상담소, 건강원, 안장업 등)

▲ 정규교육과정 (6개월 과정)

기문둔갑 유래웅 교수 고려기문학회(회장)	기문둔갑으로 문복상담을 40년동안 진검승부 하셨고,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 육효 80여권의 책을 직필저작하여 직접강의	매주(수) 오후2시~4시 (2시간)
현공풍수 박상건 교수 한미교육교류재단	중앙대학교(중앙HRD)교육원 겸임교수 주역, 사주명리 강의. 각종 문화센터 강좌	매주(금) 오후7시~9시 (2시간)
사주명리 김재원 교수 대동미래학회(회장)	대만(송영성 선생) 중국(장영달 선생) 책번역, 사주명리, 육효, 성명학, 30여권의 책을 직필저작하여 직접강의.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여 역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수리를 체계있게 용신을 잡아 역학(사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소법을 시원하게 공부시켜 드림	매주(토) 오후1시~4시 (3시간)
성명학 남상규 교수 좋은이름연구원(원장)	성명학의 대가이신 교수로부터 6개월 후 월 삼백만원이상 수업을 원하시는분 (선착순 15명)	매주(토) 오후5시~7시 (2시간)
기문둔갑(기초, 중급) 유달산 교수 유달산철학원(원장)	고려기문학회 강사, 각종 문화센터 전문강사, 서울스포츠대학원 기문둔갑 강사, 사주명리 · 육효 · 기문둔갑 전문강사	매주(토) 오후7:30~9:30 (2시간)
육임 이춘목 교수 교려육임학회(회장)	명예철학박사, (현)중앙대, 한성대 겸임교수 사주명리, 육임, 성명학 등 각 대학에서 강의중.역학계 최고 명강의	매주(일) 오전10시~12시 (2시간)
사주명리 안준희 교수 지암철학연구소(원장)	원광대 동양철학대학원(명리학,석사과정)졸업. 각종문화센타 강의중 역학계 최고 명강의	매주(일) 오후2시~5시 (3시간)

'최고 강사진'의 실력과 체계적인 원리와 전문성을 통해 학습하는 전문역학원
근대한불교 임제종 인정사 부설 인성역학원
<서울 창동역 (지하철1,4호선) 1번출구 100m>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 씨티월드 3층 02)992-5110, 993-511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스님 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각종병고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병고치료(의료)봉사 원력을
세운 비구입니다. (신병,정신
병,중풍,빙의등 각종 만성불치병)
병고치료 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분을 찾습니다
011-222-8485
침구의사, 중의학박사 성월스님

도심속 조용한 사찰입니다 기도 정진 할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9755-8988

사찰운영 맞기실분
역학 능통 (비구승)
010-9386-2323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절충)
50~60대
▷ 서울구로
010-9478-9607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500나한 기도도량 선지사 1000일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 공양주 모집
055)329-1056
011-488-10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98-99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535-00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854-0196
019-369-04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011-9426-47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8-546-2377

깊은산 명산에서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분
(40~50세 사이)
010-8976-2600

참신한 비구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인천 부평 천불암)
032)504-5344

운영이 어려운 절이나 스님이 없는 사암을 맡겨주시면 훌륭히 번창시켜드립니다
사주 역학 통달 함
(경북 경남 지역 원함)
무심
010-5574-566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명륜2동 화북면
● 법당(단청) 30평
● 2층 요사채 20평, 대지 71평
● 지하철 5분거리,
버스 1분거리, 주차가능
051)555-8516
010-8550-8440

포교당(급) 인연구함
말사 주지소임 관계로
● 특징 : 재래시장 앞
● 평수 : 약 55평
● 보증금 일천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약간절충
02)879-2460
011-204-85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1-9423-6788

공양주 보살님과 출가하여 불교에 입문할 예비스님을 모십니다
문의전화 033)671-7751~3
Fax 033)671-7752, 011-352-7751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설악산 불탑사 · 종립승가대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꾸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탈종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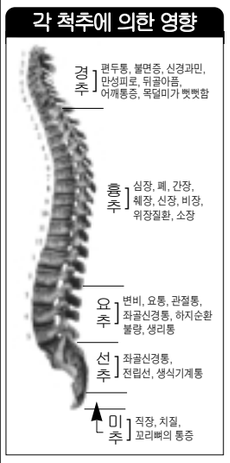
● 사찰명 : 동악사
● 주 지 : 원임(최정옥)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2리 산171-1번지

상기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3월 27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전수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년과정	2007년 3월~6월	★기초: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선원 천수경,도량석,종송 등 ★예불: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삼보통청(사시불공),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구병시식,장의편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07년7월 ~ 08년2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등계,삼귀의,합장계,고향게 개계,쇄수계,복청게,사방찬,도량게 참회게,헌좌게,욕건이,향수나열 운심게,가지게,인성이	전통의식,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막바라요잡 도량게,다게 나비춤(작복) 태징타법
2학년과정	2008년 3월~12월	천도의식 상단권공 및 시식	법주 바라지,관욕,화의재 바라 신중단작법, 회심곡, 축원화청
	2009년 1월~2월	시연회 준비-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사물다루는법, 점안의식 특강 : 법고(북춤), 공덕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2년 총 8학기 학기당 300,000원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부설 범음범패교육원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시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9-21)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 (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 (포함)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011-258-031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 ● 위치:경기도 ● 위치:대전
● 법당:19평 ● 법당:170평 ● 법당:30평
● 요사:40평 ● 요사:100평 ● 요사:60평
● 부지:150평 (무속인환영) ● 부지:3500평(외 2500평) ● 부지:700평
● 가액:2억7천 ● 가액:65억 ● 가액: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원주시립박물관 옆
● 2층건물 중 2층. 4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258-1147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운영하실분
전국 포교당 양도,운영하실분
전국 임야, 토지, 양도, 구입하실분
부전스님 공양주 갈분이나 쓰실분
천하명당(사찰,묘지,별장)을 구하시는분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중구 내동 신포시장 부근
● 삼층건물중에 3층, 30평, 전세만 6,500만원 월세 없음.
● 법당1, 방3, 부엌1, 화장실, 법당시설 양도

017-325-7745
010-7121-0408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방 4칸(스님방, 친견실)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53)783-0106
016-528-3736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임법당 포교원 방2 욕실 도시가스 조그만 거실겸주방, 부처님 4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무속인도 관계없음
● 꼭하실분 전화요망

010-9913-0031
031)314-003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매매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찰(암자) 안내

● 위치: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땀흐르는 비석)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 약 200평 태양열, 단독지하수 완비
● 요사채(슬라브건물)1층 60평
● 법당:20평(아미타불 삼존불)
● 가액: 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8487
010-5883-5005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임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사 찰 안 내

● 위치:인천도심 산사
● 부지: 약 800평 법당, 요사 각1동
● 가액:20억
● 도심속 포교 전당으로 불교 문화원 및 박물관 최적

010-3013-4664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부 지〉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 산 부 동 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내 상가건물 4층중 3층
● 평수: 9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포교당안내

● 위치: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방3,주방)
● 평수:2층 34평 (법당, 접견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888-0130

사찰안내

● 위치:경춘국도(북한강변)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토굴안내

● 위치: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 부지 405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202-3699
041)753-8137

토굴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후원,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사찰

●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미터 코너 절
● 대지 110평 건평120평 1층점포 4개
● 산림2세대 포함 6개에서 매월 월세 150만원 이상나옴 2층 법당 요사공간 큰방2개 스님방 1개
● 가액:3억 6천 4백만원
● 준비금 1억6천 7백만원이며 개인소유권이전완료 11년된 사찰 완벽함

010-6411-2882(일요일 답사)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 011-820-4617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주호 월악산
● 대지 : 153평 건평 33평(원룸4개)
● 삼불, 삼탱, 불구완비, 수석돌담
● 토굴,포교,기도 최적지
● 가액: 4천 3백 선 답사 후 결정

043)642-6876
010-461-28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24평 별도 요사채1, 산신각
● 가액 : 8천5백만원

011-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남원 지리산 휴양림역
● 평수:2,000평, 대웅전, 산신각, 독성각, 별채, 요사채 50평, 심야전기
● 주위에 오래된(200년)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는 경관수려한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11-411-0503
063)625-9992

포교당 무료로 드림

● 위치: 대구 동구 각산역
● 약70평
● 삼존불, 후불, 각단탱화,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 건강관계로 인연있는 스님께 무료로 포교당 드림
● 보증금 3000만원, 55만원 또는 1000만원 75만원

053)96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송현동 월촌역 부근
● 평수 : 53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완비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 위치: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4거리
● 평수:50평(3층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1,작은방1, 창고, 주방 및 거실 있음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큰방 에어컨 설치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손볼 거 없음)

011-9000-6311/053)290-631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 전망좋고 집기류 일체양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1-2347

토굴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입구
● 대지 500여평 밭 1500여평 주택 30평
● 주인 직접(절충가능)
● 2억 3천만원

043)832-6144
010-3356-614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부지 : 300여평 법당20평, 요사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노송이 우거진 경치좋은곳
02)909-0215
010-8501-6946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망미동 부산은행 뒤
● 4층건물 2층 아미타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현재 비구니스님 운영중, 깨끗한 관리

016-807-728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립공원 내)
● 대지 : 208평(조경완결)
● 법당 목조건물 20평, 삼신각 4평(신건물)
● 황토방 한옥건물 15평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완결,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 절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물좋고 경치좋음

011-575-039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 평수 : 60평(3층건물중 2층)
● 법당, 방3, 화장실, 욕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보살 소불, 108불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 집기일체 2천만원

010-6527-0305

사찰 및 부지(급)안내

● 위치:고성 고찰 및 부지 1,700평
● 양도가 : 3억5천만원. 올 관리지역
● 법당, 대웅전, 약사전, 요사채 등

고성 전원주택 및 사찰부지 (급)안내

● 양도가 : 1억3천5백만원 ● 총860평
● 길 나있고 올 관리지역 (전면 바다에 전망 아주 뛰어남)

010-8008-0564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대구서구청역 KT건너편길 구도로변
● 2층 법당 30평, 방3개 (약10평)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300만원(월30만원)
● 보시금 200만원, 즉시인도가능

017-741-9115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별빛마을
● 대지 : 70평
● 건축 27평, 임법당, 방3,
● 부엌1, 욕실, 화장실
● 텃밭 55평(우물도 있음)
● 가액 : 8천만원

018-358-6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 대지286평, 법당13평, 요사채24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33)762-4244

토 굴 안 내

● 위치: 부산 황령산자락 광안구 수영로터리 (2,3호선)
● 평수 : 대지 30평(2층건물)
● 특징 : 전철 근거리, 참선스님 토굴로써 최적임
● 가액 : 6~7천만원

016-9811-2020

편안한 토굴

● 위치: 김천 직지사와 청암사 중간(방향이 정남향)
● 대지 200평, 임법당 25평, 삼존불, 108호신불
● 잔디마당 주차시설 (6대 정도)
● 4천5백만원

011-832-507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별도로 있음
● 가액 7억원
※집기일체 양도

010-9935-511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3층 5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시설완벽

011-9323-4478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방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친견실
● 가액 : 3억5천만원 (사찰확인 후 절충가능)

011-863-062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근교
● 산밑 아담한 기도처
※최상급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50평, 법당 15평, 큰방 2, 작은방 1, 주방겸 방 1
● 주불 아미타불 양대보살,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 가액 : 6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603-2992
011-340-5963
017-202-87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 면적 : 약100평(320평방미터)
● 건물 : 법당(보광전),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요사채(1칸)
● 법당 : 석가모니 부처님 (5자청동불), 아미타삼존불, 지장보살
● 특징 : 군에서 직선거리 150m 전방 산자락,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원

054)655-6056
011-9308-4404

불교회관 안내

● 서울 : 대지 182평, 건물 465평
● 지하 : 가내공업1
1층 : 점포6
2·3층 : 사무실2
4층 : 요사채1 , 5층 : 법당1
엘리베이터 1대
주차시설 12대
월수입 600만원
● 양도가 : 35억원
스님환영

011-255-4036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의령에서 대구방향 25Km, 적포다리에서 의령쪽6Km) 창녕에서 20분 거리
● 대지:면적400평, 법당15평(목조 기와) 요사채30평 (최신스라브 건물 신축2년 일억이상 소요)
● 부전스님 부재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가액:2억2천 (은행대출 7~8천 할수 있음, 자금부족하면 후불상담)

011-9329-4241
011-9506-6612

70대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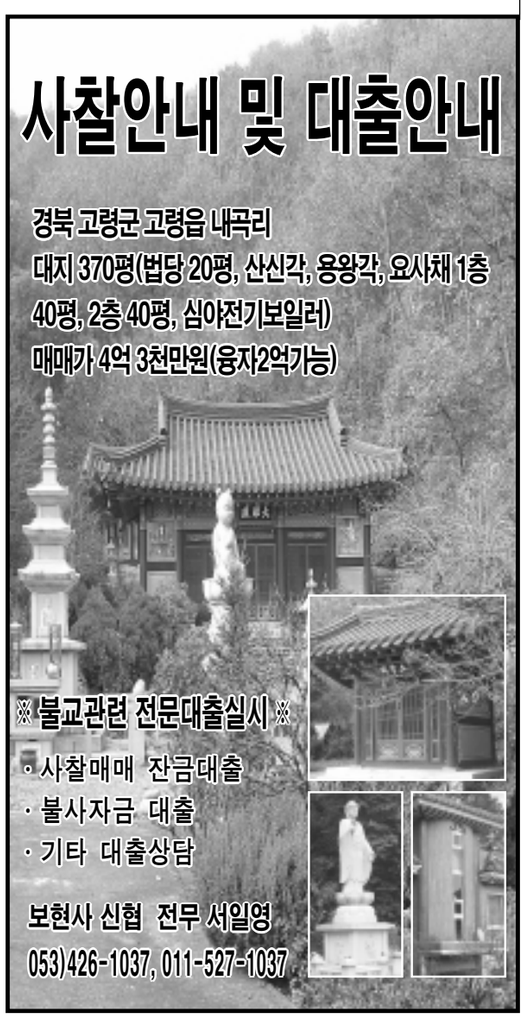
"반야가 감맛이라고 가르쳐주신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저는 안강읍 북부국민학교 앞 작은 상점에서 43년 전 어느 일요일 부모를 도와 상점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20대 중반의 비구니 스님 한분이 장갑을 사러 왔기에 장갑을 사서 가시는 스님을 불러 세우고 "무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반야심경을 외우기는 하는데 그 뜻을 몰라서 그러니 해석을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니까 잠시 장갑을 손바닥에 톡탁톡탁 몇번하시다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단 감과 떫은 감의 차이가 아닙니까?" 하고는 걸음을 총총 뒤돌아 보지도 않고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후 저는 10여년동안 감을 재배하는 법인 모양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반야심경 해석집을 어떻게 구해 보고나니 그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불문에 들어와 지금은 대한불교 선각종 스님이 되어 영천 보현산 자락에 작은 토굴을 짓고 부처님의 경을 사경 간경하면서 지낸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나, 소납 역시 60대에 들어서고 보니 왜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이 나에게 반야가 감 맛이라고 하셨는지 평생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소승은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게 되었으니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영천 보현산 등 명 사
혜명스님(속명:최영군)
054)337-4572
019-506-9448



“안아 주면 건강해져요”

포옹-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거리에서 ‘프리허그(Free hug)’ 혹은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프리허그 동영상은 지난해 최고의 UCC(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물)로 선정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론 낯선 사람과는 악수를 나누는 것조차 꺼리는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신체언어’이자 ‘아직은 쑥스러운 애정표현’인 포옹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지가 지난 2월 개최한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에 참가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안으며 격려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프리허그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포옹을 나누는 ‘프리 허그 운동’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프리허그 운동은 2001년, free-hugs.com의 설립자인 헌터(Jason G. Hunter)가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2004년 호주의 후안만이라는 청년이 프리허그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상륙해 ‘프리허그코리아(www.freehugskorea.org)’ 등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프리허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포옹이라는 하나의 실천행위를 넘어 한 인간과 인간 간에 긴밀한 연대’를 지향하는 프리허그코리아는 최근 거리에서 펼치는 프리허그에 이어 가족 간에 포옹이나 스킨십을 생활화하자는 ‘예스터치(Yes-Touch)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집안에 ‘예스터치’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 다섯 번 가족을 안아주는 것은 물론, 매달 11일을 ‘허그데이’로 정해 가족 간에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포옹하면 마음을 순화시켜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행위’라고는 해도, 남을 껴안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해도 껴안거나 쓰다듬기, 손잡기 등을 스스럼없이 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인과의 단절’이 심한 오늘날에는 모르는 사람을 안는 행위는 ‘위험한 일’이라고까지 인식되고 있다.

프리허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포옹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껴안는 행위를 통해 서로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자비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은 “상대방의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하며 안아주고 호흡을 느끼다보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며 “포옹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 같이 마음을 순화시켜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효과 외에 신체 접촉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002년 7월,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포옹을 통해 피부가 서로 닿으면 ‘애정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한다. 논문을 기고한 스웨덴 살리렌스카대학병원 하칸 올라우손 교수는 “기분 좋은 포옹은 신경계를 자극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말한다. 2003년 미국정신신체학회 역시 ‘안아 주면 건강해진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포옹요법’을 제안한 미국의 정신간호학자 캐슬린 키딩은 포옹을 하면 기분전환에 좋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불면증을 없애준다는 등의 10가지 효능을 제시하며 ‘포옹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포옹의 효과 덕분에 지난해 프리허그 운동을 시작한 육군 백골부대에서는 부정적인 설문결과와 사고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포옹을 포함한 스킨십은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안겨 있을 때 신경전달물질인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안아 주면 아이들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생겨나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아직도 배우자나 자녀를 꼭 안아주기 쑥스러운 사람이라면, 프리허그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프리허그와 예스터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와 실천방법, 스티커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하자. 안아주기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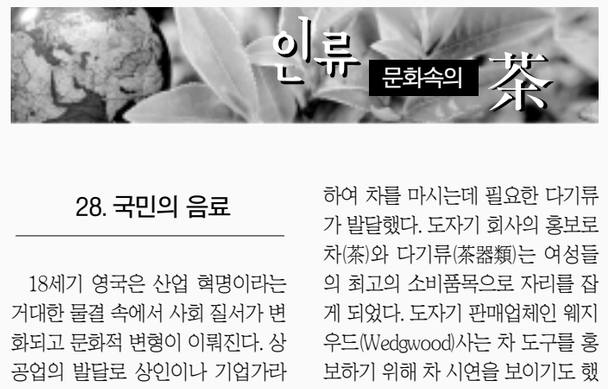
프리허그, 인간 간의 긴밀한 연대 지향
마가 스님 “ 호흡 느끼면 마음 이해”
아이들 기분 좋게해 두뇌 발달에 좋아

카드 사용액 0.2% 복지관 후원금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BC · 체크카드’를 제작, 신청자를 받고 있다.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0.2%가 복지관 후원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복지관이나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02)852-0525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나눔바자회 개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판매, 먹거리 장터, 의류나눔, 아트풍성만들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02)985-0161



28. 국민의 음료

18세기 영국은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사회 질서가 변화되고 문화적 변형이 이뤄진다. 상공업의 발달로 상인이나 기업가라는 신분이 형성되어 기존의 귀족계급과는 또 다른 신분으로 사회의 중요한 경제 요소로 등장한다.

서민들의 실직적인 소득 상승으로 인해 고가(高價)의 설탕과 차, 담배 등의 소비가 증가했다. 17세기 커피 하우스에서 커피를 애용했던 사업가와 지식인들처럼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이나 거리의 광장에서 차를 즐겨 마셨다. 더욱이 기업주들은 산업화 시대에 걸맞게 노동에 지친 근로자를 위해 ‘차 마시는 시간(tea break)’을 따로 두어 잠을 쫓고 피로를 풀어주기도 한다. 이것은 생산력 증진을 가져왔으며 보건적인 역할까지 하여 그들에게 차는 가난하지만 마실 수 있는 사치품이 됐다.



1732년 최초의 복스홀 티 가든

또한 런던에 새로운 형태의 티가든(tea garden)이 등장했는데, 멋진 다기(茶器)에 담긴 차와 음식이 준비되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는 분위기 좋은 장소였다. 최초의 티가든은 ‘복스홀 가든’이다. 이곳은 격조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날 수 있어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티가든마다 규칙이 있었는데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의 옷자락을 밟으면 사과하는 의미로 차를 대접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커피하우스는 이미 알코올 판매로 인해 상업적인 장소로 변했고,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어울리는 티가든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도자기 산업의 번성으로 인하여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다기류가 발달했다. 도자기 회사의 홍보로 차(茶)와 다기류(茶器類)는 여성들의 최고의 소비품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도자기 판매업체인 웨지우드(Wedgwood)사는 차 도구를 홍보하기 위해 차 시연을 보이기도 했으며,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처럼 차와 다기류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귀족에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즐겨 마시는 국민적 음료가 되었다.

차가 대중화되자 영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만으로 부족하여 차를 직접 생산하는 정책을 펼친다.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차 재배에 적당한 인도 일부 지역을 조사하여 마침내 아삼(assam)지역에서 야생차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한다. 인도 윌리엄 벤팅그(William Bentinck) 총독은 차나무 재배를 위하여 1834년 ‘차업(茶業)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차나무 조사와 재배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된다.

노동자까지 즐기는 국민적 음료로 대중화
영국, 인도 아삼지역에서 茶 생산에 성공

하지만 야생 차밭을 차 산업으로 변화시키기에 아직은 역부족이었으므로 중국차 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였다. 1838년에 이르러 아삼의 차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따라서 동인도 회사는 기업가들이 차 플랜테이션을 설립하도록 하여 토지 임대료와 차에 세금을 부과하여 막대한 돈을 벌게 된다. 초기에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차밭 관리가 소홀해 질 낮은 차를 생산했으나 점차 차를 만드는 과정이 기계화되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점차적으로 영국에서 중국의 차는 인도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천상과 지옥 넘나들며 중생구제의 빛 비춰주네

불화 속의 명장면 (24)

美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소장 '고려·지장보살도'

'그 때 커다란 향구름과 꽃구름 · 아름답고 오묘한 보배장식 구름 · 곱고 깨끗한 의복 구름이 몰려와 커다란 향비 · 꽃비 · 보배장식비 · 의복비를 내려 온 대지를 적십니다. 그러자 온갖 백천의 미묘한 큰 법음의 빗소리가 천지를 가득 울립니다. 이는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소리이며, 지혜로 나아가는 소리이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소리이며, 삼악도의 중생을 제도하는 소리이며….' <대승대집지장십륜경 서품 중에서>(필자편집인용)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지장보살의 등장과 더불어 이같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고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 무한한 가피력을 입습니다.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어원은 범어 키티쉬가르바(Ksiti-garbha)입니다. '키티쉬'란 '대지(大地)'를 뜻하고 '가르바'란 '생명을 품는 태(胎)'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의 '대지의 신'인 대모지신(大母地神)에 그 연원이 있다는 지장보살은, 대지가 마치 어머니와도 같이 세상만물을 품어 발육 성장시키는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명부전(冥府殿), 즉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주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구한다는 구원자로서의 지장보살의 의미에 앞서, 대지가 만물을 기르는 것과도 같이 중생을 윤택하게 증장시키고, 또 죽은 영혼에까지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지장보살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지장보살 관련 초기 경전인 이 <지장십륜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기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주기는 우거진 숲과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겐 쉬어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 단 과실과 같고, 몸이 드러나 자에겐 의복과 같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과 같고, 빈궁한 자에겐 여의보주와 같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의지할 바가 되고, 갖가지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단비가 되고….'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2 : 지장보살의 금석장, 그림3 : 광명의 여의주, 그림4 : 지장의 발을 받치는 금연화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여성적 느낌을 한껏 풍기는 아름다운 고려시대의 지장보살을,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턴에서 우연한 기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프리어갤러리(스미소니언 협회)는 한 · 중 · 일의 동양 유물 컬렉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소장된 고려불화 조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니, 담당 학예관이 비공개 작품이 하나가 더 있다며 신주 모시듯 가지고 나와 펼쳐보여 준 것이 이 고려 지장보살도입니다(그림1).

고려시대에는 단독 '지장보살도',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함께 그려진 '지장삼존도', 열 명의 시왕과 함께 그려지는 '지장시왕도' 등 다양한 형식의 지장보살도가 다수 존재하여 아미타신앙과 더불어 지장신앙이 매우 유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그려진 지장보살입상도 중에서, 이렇게 자태가 아름답고 맵시있는 지장보살은 참으로 보기 드물다 하겠습니다.

붉은 보석이 알알이 박힌 금석장(그림2)을 한 어깨에 걸치고 석장대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 바치고 있습니다. 영롱한 투명 여의주(그림3)를 오른손 바닥에 받쳐 들고 있고, 가사는 남색에 군의(치마)는 붉은 색인데, 수놓아진 문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금빛을 발합니다. 지장의 발은 금연화(그림4)가 떠받치고 있군요. 그 외 장식은 링 귀걸이와 영락 목걸이로 다른 보살에 비해 매우 간결합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가락 놀림, 왼발을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표현된 옷자락의 탄력, 과하지도 또 덜하지도 않은 매우 매력적인 자태입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매력, 단독 입상 중 걸작
삭발 승려인 성문형상…중생 속에서의 구제 의지
석장은 부처님 위신력 징표며 지옥 문 여는 지팡이

물론 지장보살은 보살입니다만, 보통 보살처럼 높은 보관을 쓴다거나 화려한 영락장식을 주렁주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모양은 삭발한 승려인 성문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살과 성문의 중간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장십륜경> 및 <지장보살본원경> 등에도 '성문(聲聞)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신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장보살을 어찌하여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성문형 즉 승려의 모습을 취하는 것일까요?

나한신앙과 관련한 지난 연재에서도 언급했듯이, <법화경>에는 성문과 같은 범부의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섞이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방편을 쓴 보살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살들은 부처의 세계와 속세를 연결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보살의 모습보다 더욱 친근한 중생들과 같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민중 속으로 대중들의 고통 속으로 가깝게 다가서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겠지요.

미래의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육도(六道: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고 커다란 서원을 세웠기에 지장보살은 '대원본존(大願本尊)' 지장보살로도 통합니다. 지장보살은 이렇듯 중생들이 현세에 지은 악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세(특히 지옥계), 즉 업(業)을 짓는 현재 인간세와 그 업에 대한 보(報)를 치르는 내세, 양쪽과 밀접히 관계하기에 '유명교주(幽冥敎主)' 지장보살 및 '남방화주(南方化主, 남방이란 남염부제를 지칭하며 인간세를 뜻한다)' 지장보살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계에서 지옥계에 이르는 육도를 분주히 다 넘나들자면, 게다가 지옥의 형벌 현장에서 죄지은 영혼을 변호하랴, 염라대왕을 설득하랴, 세운 서원대로 삼악도의 일체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려면, 화려한 장식과 의습 거추장스런 보살의 차림새로는 사실 무리겠지요.

지장보살은 금석장과 여의주를 그 특징지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석장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대신하는 징표입니다. 마치 왕의 권한을 대신하는 암행어사의 마패와도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이 특별히 빌려준 석장을 가지고 아비지옥으로 향하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목련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의주는 어두운 지옥에 광명을 비추어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 광명으로 인해 병이 있는 자 모든 병이 낫고, 죽게 되거나 결박되어 옥에 갇힌 자들이 모두 풀려나고, 몸과 말과 뜻이 거칠고 무겁고 더럽고 탁한 자들도 모두 부드럽고 청정함을 얻고 … 가지가지 형벌로 고통당하는 자가 이를 모두 여읠 수 있다<지장십륜경>'고 합니다.

조선전기 성종16(1485)년에 간행된 경본을 비롯한 다수의 현존하는 <지장보살본원경>의 첫머리 지경계청 부분에는 '자비스러운 인으로 선근을 쌓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해내는 (지장보살이) 손 가운데 가진 금석주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대천세계를 비추나니'라는 문구가 확인되어 그 지물의 기능을 명료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장보살을 어김없이 지옥과 현세의 고통 속 현장을 넘나들며 금석장으로는 수많은 지옥문을 두드리고, 여의주의 광명으로는 어둠 속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겠지요.


그림1: 美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소장 '고려 · 지장보살도'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불교명상지도자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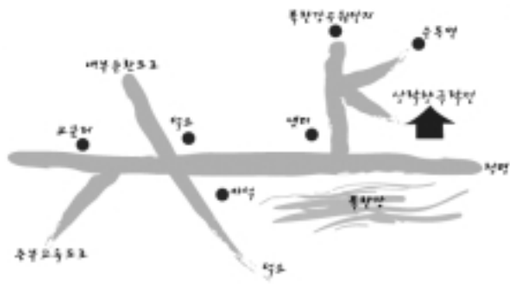

보현 김옥자 박사
(세계불교 명상센터 원장)

(1)가정과 직징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크리닉 – 제 1차 3개월
② 전문과정 : 견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뎀브렐스님
(몽골 다시쵸링)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 계 불 교 명 상 센 타



대행스님

마음의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안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이유

문 선원과 인연이 되어서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어떤 거 하나 허투루 해 놓은 것이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에서부터 재사, 공부 방법, 뜻풀이 경전, 하다못해 선법가까지도 타력으로는 조금도 샐 틈이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모든 것을 오직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 놓으셨는지요?

답 여러분께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 양으로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참 감개무량하고 어떤 땐 너무 기쁩니다. 생활에도 도리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참 도리가 있어야 하고, 중심과 중도(中道), 중용이 있듯이 불가에서도 부처님 법을 진짜로 전수받고 진짜로 내가 정각을 이룰 때에,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틀리면 아니 되니까요.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면 피고 또는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 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를 탄생시켜서 놓으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덜 된 분이 있고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습을 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이 현재에 사시면서도 그러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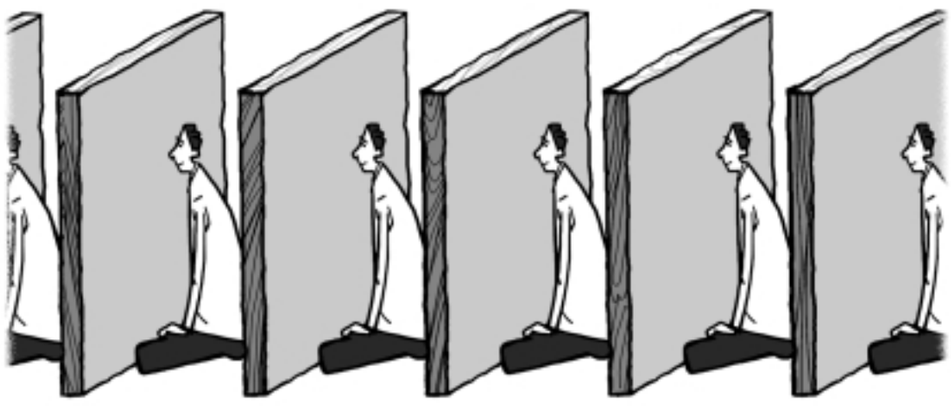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 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로 보이거든요. 글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지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직결하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에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럽니다. 각자 나로 인해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놓으라니까 "참, 다 놔지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다 놔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있으니깐 된 겁니다. 그게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 이런 거구나!' 자라 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 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죽거리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둘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껍데기 아니야?" 그러니까 껍데기가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뺏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얕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얕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둘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게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고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툴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지까지, 구경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요 웃어도 자기요, 못해도 자기요 잘해도 자기요, 망해도 자기요 승화가 돼도 자기예요. '몽땅 놔 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돌아가니깐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알갱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별게 다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다 얻지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금에 대해서

문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도 저 혼자 수습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큰스님 친견을 두 차례 했습니다. 저번 달에 한 것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만 저는 정성금을 큰스님께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스님께 드리고 싶은 금액이 제 나름대로 정

☞22면으로 계속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돌 뿐!

불교한문학과
육조단경강좌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 · 통신반

교과목	· 육조단경(2007년 상반기),주역(1),주역(2)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한국고전②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지도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무진장스님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3.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사찰음식문화학과 3월 21일 개강
(선착순 30명 모집)

한국전통예술의 보고
승무 · 법고 신입생 모집

■ 승무 · 법고 작법(2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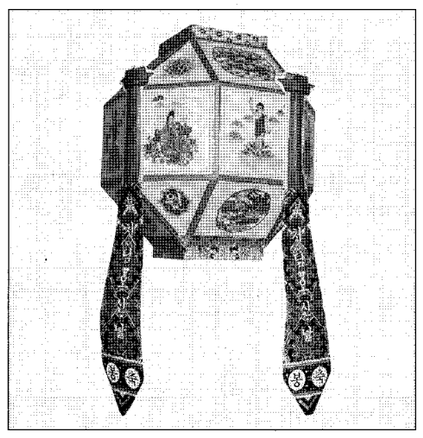
1. 개설취지
우리민족 고유의 움직임인 승무와 법고의 예술수행을 통해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공양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2. 교과목

내용	1학기	몸만들기 / 움직임의 기초 (살풀이 기본)
	2학기	승무익히기
	3학기	승무 / 법고익히기
	4학기	승무를 이용한 육법공양 및 창작
지도법사	이철진 (한국춤예술원장)	

3. 개강일시 2007년 4월 4일 (수) 오후2시
매주 수요일 오후2시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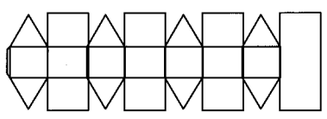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어저께 금방 콩씨더니 바로 오늘에 콩나무가 됐더라!

☞21면에서 계속

해졌습니다. 언젠가는 큰스님께 뭐 과자값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부닥쳤습니다. 그 일이 허가를 받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여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큰스님을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친견하면서 조그만 저의 마음의 표시를 큰스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답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긴 거를 한 번 짧게 해 보십시다. 그렇게 또 누가 묻걸랑은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말씀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되면 꼭 시주하겠다는 금액을 자기네들 마음으로 정해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문드문 이게, 처음 오셔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다가 금액을 정해 놓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됐는데도, 그거를 안 한다 이겁니다. 이러면 그거는 됐다 하더라도 딴 게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의 물건은 가져가고 물건값을 안 갚으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이렇게 해 주시되 그 금액을 지어 놓고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단 있다면, 자기 마음으로 '그저 이런 게 이렇게 잘되면 어떡하든지 그저 불사도 하고 그러는 데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새 돈으로 정성껏 이렇게 해서 담아서 하면 대치가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곤 옵니다. 이거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이 길잡이 노릇 하기가 얼마큼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사람 셋 끌고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니 정말입니다. 언제나 누가 스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고 묻걸랑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세요, 꼭! 자기네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앞에 갖다가 보시하거나 그러는 건 왼손으로 할 때 바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무심으로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먹은 거고 자기가 쓴 거니까. 자기가 가져갈 거고 말입니다.

누구를 잘살라고, 누구 병 낫게 내가 약을 해 주느라고, 그렇게 누굴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 낫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갖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사니까, 같이 돌아가니까, 그쪽에서도 아! 하고 거기에 닿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도움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 주처에서 의사도 나고 약사도 나고, 판사도 나고 관세음도 나고, 문수도 나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공해서 돌아가니까요.

경을 읽어서 공부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지만
문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습니다

참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문 안녕하십니까? 불교 경전 공부와 참선에 관심이 많은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참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참선이라는 거, 예전의 스님네들은 '참선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제 일등으로 쳤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 일투족 전부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제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야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마음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을 시켜서 놓는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자(子)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父)가 되는 겁니다. '부와 자가 둘이 아니니라' 하는 뜻은 '부가 자로 가면 자가 돼 버리고, 자가 부로 오면 부가 돼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걸 어떻게 생략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을 가만히 두면 부가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이 소립니다. 또 마음을 내고 움죽거렸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신(法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내가 움죽거릴 때는 부처가 아들로 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움죽거렸던 게 바로 부로, 자부처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체가 없는 거라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함이 없이, 함이 없이 그냥 가고 옴이 없이 그대로, 그대로 자가 될 땐 자가 되고 부가 될 땐 부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수많은 유생(有生)이나 무생(無生)이나 전체, 즉 말하자면 저 물이나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을 막론해 놓고, 보이지 않는 데 영계, 유령, 유체 또는 세균이나 또 사람들 사는 마음, 천차만별로 마음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겁니다.

참,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 척 들었다고 하니까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우주를 든 겁니다, 전체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손 든 것도 방편이니 손 들 것도 없이 내가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로 주인공과 함께 하는 거죠. '승보(僧寶)도 그러하니라.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닐진대 승보도 그러하니라. 승보는 그냥 따라가느니라.' 이러거든요.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과 법과 승보가, 불과 법이 즉, 아비와 자식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때는 승보도 그러하니라. 몸은 그냥 따라가느니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참선이라는 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그 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데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체 한생각에는 나도 건질 수 있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바로 샘솟듯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로써 양식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그냥 도예요. 그러니까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참선할 사이가 없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참선한답시고 시간을 내서 앉았다면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똥 누면서도 진짜 진실히 돌아간다면 이거는 참선이 돼서 그게 공덕이 되는 거고요,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게 공덕이에요. 공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한마음으로 움죽거리고, 한마음으로 먹고 한마음으로 살고, 한마음으로 용을 하고 이러는 모든 것이 그대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산다면 자기를 보기까지, 참 자기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생활 자체가, 당신이 보고 듣고 하고 만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당신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믿고 일임하고, 꺼내 쓸 때는 거기서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나요?

문 제가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분께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 마음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어디서 왔나요?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돌고 도는 물과 같은 것이지만 말 한마디 규정해서 아귀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알면 아는 대로 안다는 것을 세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마이크 안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마이크의 근본은, 우리가 씀씀이가 없다면 이 마이크는 소용이 없죠.

이전도 아니요 이후도 아닙니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 돌 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모든 게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세울 게 없으니 어디로부터 세울 게 없는 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계단이 없으면서도 한 계단이 있고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려워라. 두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알고 두 번 죽어서 몰랐더니, 세 번 죽고 보니까 알고 모르고 혼비백산이 돼 버렸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창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억겁을 거쳐서 진화가 돼서 나왔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의해서 모든 게 규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 금방 콩씨였더니 바로 오늘에 보니깐 콩나무가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억겁을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이 몸 하나 난 것이 전체 그 습으로 인해서 두리둥실 뭉수리처럼 다 짊어지고 안고 이고, 이러고 바로 오늘의 내가 지금 살고 있죠. 전자의 살던 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하면 여자의 행동을 하는 습을 가졌고, 남자라 하면 남자의 습을 가졌고, 또는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른이라는 습을 가졌고 또 어른 보면 나는 젊은이라는 습을 가졌고, 살림살이의 모든 전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모든 전체 이날까지 살아온 습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두 마디는, 글자는 똑같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차원이 똑같은 바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넝마도 있고 깡통도 있고, 무쇠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서로 모이는 모임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자기의 습에 의해서 차원대로 자기 모임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자기 습에 의해서 인과를 짓고, 인과를 지음으로써 그 습을 떼지 못하면 바로 그게 유전으로 변화하고, 유전으로 변화한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아끼고 그러던 착을 둔 데에 꼭 유전성이 거기에 붙어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얽히고설키고 그렇게 붙어 돌아가고,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이렇게 여직껏 내려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습을 뗀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공이요, 또 내 몸도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붙을 데가 없는데, 떼려고 하는 게 어디 붙을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거는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래는 있다 없다가 흰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생 무생의, 만 사람의 마음의 꽃이 향기로써 이 우주를 덮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갈라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향기와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어질고 도의 의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 높은 그런 넓은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도리를 알아서, 공한 도리를 알아서 자기의 아상도 세우지 않고 욕심도 착도 두지 않고 둥글둥글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자 부처인 것이죠.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자 세상보기

은 산
부산 금선사 주지

'행복지수 후진국' 면하려면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GNP)이 지난 20여년간 무려 10배나 높아졌다.

골드먼 삭스 보고서는 2050년에는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천 달러에 이르러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세계최고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통계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지구촌 '행복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수년간 세계 100위권 이내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는 눈만 뜨면 스스로도 입이 벌어질 만큼 부자가 되어 가는데, 정작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겠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행, 불행은 모두 심리적 현상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쳐 말하자면 행복지수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마음이 핵심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서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왕국 부탄이 곧 그곳이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고작 1천달러도 채 넘지 않는 후진국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을 가리켜 '행복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쓴바 있다. 그들은 나라발전의 척도를 경제성장에 두지 않고 이른바 국민총행복(GNH)의 성장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탄보다 훨씬 잘 사는(?) 우리는 왜 행복해 하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속'의 버릇 고치기'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욕심 줄여 만족하기다.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 풍요로움과 편의를 누리며 산다. 그런데도 욕심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르면 억만장자라도 부유할 수 없다.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특히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것이 얼마든지 많다.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는 최근 워릭대학교의 경제학자 앤드루 오스왈드교수가 유럽 16개국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 즉 돈보다는 정신건강과 혈압이 행복의 척도와 상관관계가 더 깊다는 결론을 얻어냈다고 발표했다. 욕심을 줄이면 돈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말씀.

둘째, 증오심 내려놓고 감사하기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뿐더러 자칫 병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평소 잘해주던 상대가 한가지만 서운하게 해도 등을 돌리는 심보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는 잘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 감사하고 용서하며 미소 짓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하다. 증오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불행지수만 높아질 따름이다.

셋째, 더불어 생각하며 나누기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속내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 같다.

더불어 공유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없고 따라서 나 자신도 행복해 질 수 없는 법. 가족간 이웃간 지역간 갈등, 빈부격차를 비롯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더불어 생각하며 나누기'를 구체화하는 것만이 해법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위의 세 가지만 꾸준히 고쳐나가더라도 우리는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행복지수 세계 100위권 진입은 물론 10위권 진입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불자의 눈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원명스님이 추천됐다. 불보(佛寶)사찰인 통도사에는 불지종가(佛之宗家)라는 오랜 긍지가 있다. 그런데 2003년 월하 스님의 원적 이후 방장실이 비어 있었고 주지 선출 문제를 놓고도 긴 시간 갈등을 보여왔다.

'종가집이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경남 지역의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 실제 포교 현장에서는 "통도사가 안정되지 않고 지역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불교세도 위협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통도사가 그간 총림과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을 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방장과 주지직을 둘러싼 다소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산중의 공의를 모아 방장 스님을 추대한 것은 더 큰 걸음을 걷는 도약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의 바람이다.

영축총림의 방장 추대 사부대중 화합의 큰 상징

이제 산중총회를 통해 그동안 의견을 달리했던 양상을 일소시키고 뜻을 모아 방장 후보를 추대한 만큼 종갓집의 향후 역할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을 모신 도량이다. 이는 수행과 청정한 가풍 수호의 상징이기도 하다.

해마다 개산대재를 성대히 봉행해 경남과 부산지역은 무론 전국 불자들의 불심을 고취시켜 온 것은 통도사의 큰 자랑이다. 성보박물관이 마련하는 높은 안목의 기획전과 각종 행사로 불교전통문화 보존의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부산과 서울 등지에 설립된 여러 포교당들은 종갓집의 가풍을 근간으로 전법교화의 일선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이번 통도사의 방장 유고를 지켜 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승가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신행형태는 승가와 재가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승가만의 불교도 아니고 재가만의 불교도 아니다. 사부대중이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때 한국불교는 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재가의 공경을 받는 승가의 화합과 모범은 승가의 절대적인 위의를 형성하는 힘이기도 하다.

1994년 조계종의 개혁불사 이후 98년과 99년으로 이어졌던 '종단사태'의 경우도 승가의 화합이 깨지면 불교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보여준 교훈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지금까지도 승가의 갈등구조는 해소되지 않은 채 종단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재가불자들이 '청정교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승가 자체에서 반성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하는 현실이다. 분란은 멸망의 지름길이고 화합은 발전번영의 밑거름이다.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어 가는 원로들의 '무게'가 필요한 이때 영축총림의 방장 추대는 적지 않은 '상징성'을 담고 있다.

'종교자유' 칼럼

2. 인간의 기본권, 종교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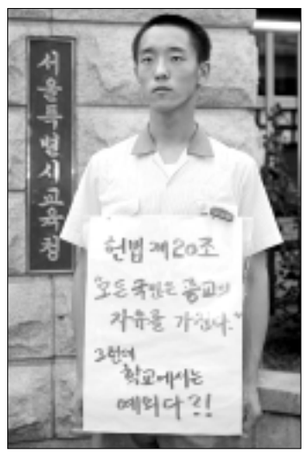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각계서 사적종교 과잉표출… 사회갈등 유발 늘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사회에는 변화와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다. IMF의 후유증을 딛고 사회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오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각양각색의 주장들을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훈련이 부족했던 한국사회이고보니 적지 않은 경우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듯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의견 표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져 의견수렴이 빨라지면서 사회 변화에 속도감이 생긴 것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종교 관련한 사회문제로도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하느님 봉헌 사건'과 정장식 포항시장의 '성시화 운동', 문봉주 뉴욕총영사의 성경강좌 등 공직사회에서의의 종교 편향, 그리고 한 고교생의 교내 강제예배 거부 시위 및 단식, 대학생들의 채플 강제이수에 대한 반발, 현직 중학교 교사의 종교 강요에 대한 양심선언 등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종교가 과잉 표출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타종교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킨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4년도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접화제가 되었다.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 학교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특정종교를 강요해왔다는 사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음은 물론이다.

여러 가지 자유를 말하지만, 그 중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개인적이며 은밀하고 절대적인 자유다. 헌법은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못 박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은 그가 믿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들이 이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정책의 수립과 관리 ·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학교 강제예배에 거부시위하는 강의석군.

이미 어떤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흔히 종교 표현의 자유, 선교?포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무리한 종교선전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항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자유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의 장에서마저 강압적인 선 · 포교를 허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화합을 깨뜨리도록 방치한다면 그런 사회를 어떻게 자유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를 강요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앞장서서 개선할 것으로 믿는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공격적인 종교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교적 관용이나 다원성에 대한 신념을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세뇌시키면서 공격성에 대해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다. 요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부 성직자나 심지어는 신도들까지 삭발하면서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원위치로 돌려놓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개방형 이사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걸림돌이 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 종교계가 위기를 느낀 나머지 점점 정치세력화 하고 공격적 방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울타리라고 여겨왔던 부분을 이제 와서 새삼 공공영역으로 선뜻 다시 내주기가 그리 쉬운가. 마치 사람 다니는 인도까지 점령하며 장사를 하던 가게 주인이 어느 날 '인도는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공공장소이니 철거하라'는 통보에 당연한 줄 알면서도 일단 저항해 보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오래된 기득권과 관행이라는 점에서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세상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되어 있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해서도 안 된다. 종교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사회는 변했는데 종교계는 변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고 있어도 안 된다. 정당한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는 종교는 국민들의 거부감 내지 혐오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회화화 되기도 하고 권위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어떤 종교로부터도 강제 받지 않을 자유와 종교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인권이며, 그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나 인권감수성의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천년 고찰서 2천불자 '참불자의 삶' 발원

도선사 108사찰순례단 6회차 순례…정진 · 군장병 수계 · 농촌사랑 "환희심 가득"


혜자 스님이 법회장을 방문한 이인제 국회의원(왼쪽 첫번째)과 임성규 논산시장(왼쪽 세번째)을 소개하고 있다.


동학사 학인스님들이 수계 장병들에게 연비를 집전하고 있다.


관촉사 입구에 마련된 특산물 매장에서 기도순례 참가자들이 논산 딸기를 구입하고 있다.

인산인해(人山人海)다. 조용하던 산사가 갑자기 술렁거렸다. 3월 3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 관촉사 일주문(一柱門)을 출발해 경내로 들어오는 2000여 순례객 때문이었다. 서울 도선사가 매월 진행하는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하는 108산사 순례기도법회'였다.

관광버스에서 일제히 내린 2000여 신도들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인솔로 질서정연하게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경내로 들어섰다. 순례객 모두가 관촉사의 가장 큰 어른(?)인 석조미륵보살입상 앞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 무려 30분이 넘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순례여서인지 순례객들은 일사분란하게 일명 '은진미륵'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앞에 마련된 공양미 자루에 준비해온 쌀 한 되씩을 붓고서 자리에 앉았다. 제법 넓은 경내였지만 빈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졌다.

마중나온 관촉사 주지 태진 스님은 "올해가 관촉사 창건 10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인데 창건이래 최대의 순례객들이 오늘 모이신 것 같아 참으로 경사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리를 정돈한 순례객들은 '천수경' 독경에 이어 108배를 올렸다. 혜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오늘 불자님들이 하나가득 안고온 발원(發願) 보따리를 기도하면서 마음껏 풀어 놓으시라"고 격려했다.

법회도중에는 2000여 불자들이 관촉사에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이인제 국회의원과 임성규 논산시장 및 시의원 5명이 법회장을 찾아 지역특산물을 많이 구입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이 자리에서 혜자 스님은 임성규 시장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회 후 참가자들은 혜자 스님으로부터 관촉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를 한 알씩 받았다. 이날 염주를 가장 처음 받은 주인공은 법회장 맨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린 불자가수 장미화씨. 장씨는 "첫 순례법회때부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업장소멸을 위해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다"며 "꼭 출연해야 하는 공연 스케줄이 없는 한 기도순례 회향날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108염주알을 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순례단 맨앞에서 정진중인 불자가수 장미화씨.

순례단은 기도 순례 외에 현지 농산물 구입 운동도 함께 벌여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이날은 논산 특산 딸기와 강경 젓갈을 파는 좌판이 일주문 밖에 펼쳐져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점심공양 후 순례단은 인근 육군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로 자리를 옮겨 장병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5백여 장병불자들은 청정한 계를 철저히 지키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뒤 이날 순례법회에 참가한 불자가수 장미화씨와 머루씨는 음성공양을 통해 법당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순례법회 참가자들은 각자 한 상자씩 가져온 초코파이와 지역에서 구입한 딸기를 군법당에 보시했다.

강의중 호국 연무사 주지 법사는 "군포교의 텃밭인 논산 훈련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개 종교가 장병 포교를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일반 사찰의 후원이 적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방문해서 격려와 위로를 해 줘 군포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며 즐거워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혜자 스님도 "군포교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한번 실감했다"며 "다음번 순례때부터는 답사지역 인근의 군법당을 꼭 방문해 장병불자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8사찰 순례단은 3월 29일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일곱번째 기도순례를 봉행할 예정이다.

논산=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2000여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이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향해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협찬 : 108사찰산사기도회

혜자 스님 '농촌사랑 홍보대사'에 위촉

(사)농촌사랑범운동본부(상임대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강신호 경제인연합회장)는 3월 2일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혜자 스님, 김시영 신부를 '농촌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108사찰 순례 및 우리 농산물 구매 활동을 통해 우리농촌 살리기에 앞장선 공로로 농촌사랑범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혜자 스님은 "108사찰 순례때 해당 지역 불자들이 절 밑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농촌사랑운동으로 확대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108사찰순례단을 대표해 대신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혜자 스님은 그동안 여섯차례의 사찰기도 순례를 통해 지역 복지시설에 108만원씩 기부했으며, 특산물 구매를 통해 농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7~8년간 108곳의 사찰에서 농촌사랑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혜자 스님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농촌사랑운동이 범종교적 나눔운동으로 확대되도록 종교인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농촌사랑 홍보대사에는 인기 여성그룹 주얼리 등 154명이 소속돼 있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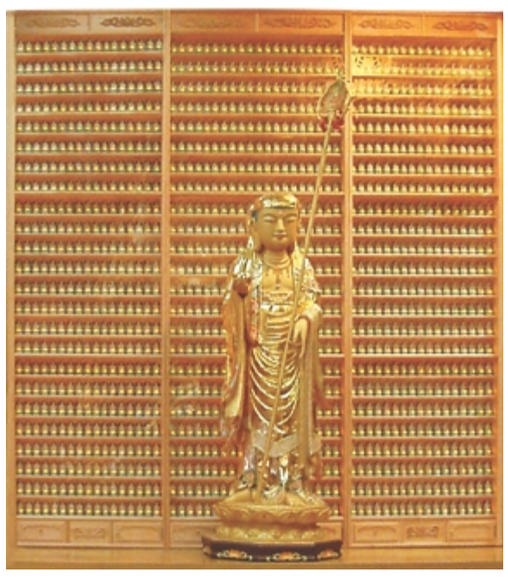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